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FDIC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49호

Monday, October 14, 2024 A

‘해리스 위기론’ 확산... “바이든과 차별화 실패”

대선 3주 앞 지지율 정체 해리스 왜
경제정책 선호도 트럼프에 밀려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지지세 증가
NYT “흑인 유권자 결집에도 실패”



미국 대통령 선거를 3주 앞 남겨둔 12일 다수의 언론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사진 왼쪽)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해리스 위기론’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선거의 마지막 순간으로 접어들면서 해리스는 여러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을 미세하게 앞서고 있지만, 분위기 전환의 흐름이 심상치 않단 의미다. WP는 그러면서 해리스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리스는 후보로 나선 뒤 줄곧 ‘미래’와 ‘변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최근 ABC 인터뷰에서 ‘4년간 바이든과 다르게 했을 것 같은 일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스스로 ‘바이든의 아바타’임을 시인한 말로 해석됐다.

WP는 스스로 공화당에 가깝다고 느끼는 유권자가 민주당 유권자보다 많아진 선거지형도 해리스에게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4일 겹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화당과 정치적 정체성이 유사하다고 답한 비율은 48%를 기록해 45%인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또 유권자들이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던 2000년 이후 4번의 선거

에선 경제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쪽이 낙선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선거 역시 경제가 핵심인데, 경제정책 선호도는 46% 대 41%로 공화당이 더 높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7개 경합주(Swing State) 중에서도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다. 그런데 최근 공화당 지지 입장을 밝힌 등록 유권자의 증가세가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분석 사이트인 ‘록 폴리틱얼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에서 등록된 민주당과 공화당 등록 유권자 수의 차이는 68만6000명이었지만, 현재 격차는 32만5000명으로 절반이 됐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과 트럼프가 얻은 득표율 격차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한지혜 기자
▶ 2면 ‘해리스 위기론’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인 27% 건강 적신호’ 기본적 건강검진 안받아

미국인 네명 중 한명 이상은 매우 기본적인 건강검진(screen)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너스 프랙티셔너 연합회(AANP)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 27%가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의사 등 의료인을 만나 문진 형태의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으로 엑스레이와 CT 등의 검진과는 거리가 멀다. 보고서는 주치의가 없는 미국인들이 많아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야 병원을 찾는 경향이 강했다.

하버드대학 공중보건정책대학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 1억명 이상이 정기적인 주치의를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미국인 40% 이상이 프라이머리 닥터를 만나기 위해 10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채 기자
▶ 5면 ‘건강검진’으로 이어집니다

북 “국경 포병부대에 사격태세 지시”

김여정 “무인기 또 오면 참변” 위협
북한 총참모부 “전시 편제 완전무장”
군 “국민 위해 댐 북한 정권 종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임무 수행부대들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총참모부 작전 예비 지시에는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히 무

북한이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남측 무인기.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된 8개의 포병부대를 13일 오후 8시까지 사격 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 보장사업을 완료할 데 대하여 지적되어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

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이같이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참변”과 “전쟁 발발”을 운운했다. 무인기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북한은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소식을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렸다.

김여정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떼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침해 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근평·박현주 기자
▶ 12면 ‘무인기’으로 이어집니다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 행사. 홍정도 부회장(오른쪽)이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념식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회장,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 미주중앙일보 48년 구독자 어명환씨, 케빈 김뱅크오브호프 회장, 김영완 LA총영사.

김상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봉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플랜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위

Larry Hogan for U.S. Senate in 2024

한인 지지자들이 (Korean-Americans for Hogan) 래리 호건 주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보다 우리의 가치와 미국에 대한 공헌을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코로나가 우리를 휩쓸었을 때,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근절에 앞장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했으며,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 공공 안전 강화, 국경 보호, 은퇴자와 스몰비즈니스 지원, 세금 감면과 경제 회복,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세계 수준의 교육 보장 등 현재 미국과 메릴랜드 주민들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지금 워싱턴이 필요한 것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치가 아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8년동안 제가 주지사로서 해왔던 일이며, 상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11월 5일 (화)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국과 메릴랜드,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락처 (240) 459-2128

PAID FOR BY HOGAN FOR MARYLAND INC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여론조사론 못 읽는 변수 셋 있다

공화·민주 어느 쪽이든 후보를 바꾸면 이긴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돌기 시작한 건 미국 대선을 1년 가까이 앞둔 지난해 말부터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모두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이라 그랬다. 과연,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고 냈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민주당의 교체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첫 후보 토론회 이후 트럼프의 백악관 재임으로 굳어지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선거판의 헤드라인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사퇴 전까지는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는데,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로 바뀐 후에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질렀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왼쪽)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애리조나 캔들러에서 캠페인 하는 모습. 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 모두 경합주로 19명, 11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다. 11일 현재 리얼클리어폴릭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두 곳 모두에서 근소하게 앞선다. [AP·AFP=연합뉴스]



와 결이 다르다.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에서 주장하고 실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은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법안이다. 해리스는 대선 낙태 관련 정책으로 여성표를 넓히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 조시 샤피로의 인기로 힘입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해리스가 박빙 우세로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고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전국에서 숨은 트럼프 프지사, 즉 '샤이(shy) 트럼프'가 가장 많은 곳이다. 최근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 4년 전에 트럼프를 지지했느냐의 질문에 3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4년 전 투표결과는 48.84%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가 약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요하다. 소수계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선거에서 트럼프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때문에 패배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을 넓히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 조시 샤피로의 인기로 힘입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해리스가 박빙 우세로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고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전국에서 숨은 트럼프 프지사, 즉 '샤이(shy) 트럼프'가 가장 많은 곳이다. 최근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 4년 전에 트럼프를 지지했느냐의 질문에 3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4년 전 투표결과는 48.84%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가 약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하순부터 다시 트럼프에게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후보토론회에서 오하이오주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애완견을 잡아먹는다는 등 막말발언을 한 트럼프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 이후 오히려 뉴스의 초점이 되고 선거판의 주도권을 다시 쥐기 시작하면서 반등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막말은 선거판 헤드라인을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해리스에 쏟아진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은 8월 시카고 전당대회를 정점으로 거품이 걷히기 시작했다. 이제 선거가 3주 남짓 앞으로 닥쳐왔다. 오랜 기간 미국 대선을 관찰해 온 필자의 견해로는, 여론조사만으론 잘 읽을 수 없는 변수 몇

가지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승부처는 단연 펜실베이니아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 대통령을 펜실베이니아 1개주에서 뽑는다는 말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중 선거인단수(19명)가 가장 많다. 또한 대륙의 가장 동부지역이라서 개표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다. 펜실베이니아 개표결과가 나오는 시각에 중부, 서부 경합주에선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그 결과는 중부, 서부 경합주의 표심에도 영향을 준다. 펜실베이니아는 원래 탄광·유전·철강 등 2차 산업이 주 경제원인데 1990년대 초반에 주 경제원인 1990년대(新)경제와 세계화란 명분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바람에 쇠락해졌다. 그 바람에 민주당에 배신감을 갖게 된 유권자들의 표심이 2000년대 들어 점점 공화당 쪽으로 옮겨갔

① 사이 트럼프 숨은 트럼프 지지층 비율 전국 최대 4년 전 바이든, 1%P 차이 겨우 이겨

② 우편투표 친민주 성향인 소수계가 많이 이용 트럼프 반발에 경합주서 제한 늘어

③ 백인 표심 경합주 유권자는 백인이 절대다수 기표소 안에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격리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을 탈출하다시피 뛰쳐 나와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플로리다에선 이겼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의 결과는 1%포인트차 석패였다. 부정선거라 주장한 트럼프는 아직도 자신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는 4년 전의 바이든처럼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펜실베이니아는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유권자의 다수다. 경합주 중에 경제 이슈가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펜실베이니아가 트럼프에 쏠리는 이유는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입장 때문이다.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많이 캐내 에너지값을 내리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한다. 광산 폐쇄와 가스·석유 산업의 쇠락은 펜실베이니아의 쇠락으로 이어졌다. 환경과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는 해리스의 정책은 펜실베이니아 경기 활성화

▶ 1면 '해리스 위기론'에서 이어집니다
해리스 캠프는 10억 달러(약 1조344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아 매일 750만 달러를 광고 등에 투입하고 있다. 260만 달러를 쓴 트럼프를 3배 앞선다. 이에 대해 더 힘은 "막대한 자금력이 왜 해

리스를 확실한 선두로 끌어올리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해리스가 2차 토론을 계속 요구하는 점도 막판 판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해리스의 지

지율 정체 배경에 대해 "흑인 유권자들의 결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NYT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를, 15%는 트럼프를 각각 지지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에

서 이들이 민주당에 각각 92%와 90%의 일방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과는 차이나난다.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흑인 남성들을 향해 "여성

을 대통령으로 두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고 '호통'에 가까운 연설을 한 것도 흑인 지지자 결집에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한지혜 기자

마지막 변수는 백인 표심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과 비백인의 비율은 55대 45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 숫자는 70대 30으로 보는 게 맞다. 해리스는 '흑인 여성' 후보다. 지식인일수록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기표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경합주의 유권자 수는 백인이 절대 다수다. 해리스는 이중 삼중의 핸디캡을 안고서 11월 5일을 맞는 것이다.

김동석 민주당인원권자연대 대표

주요 경합주 현황	11월 현재
단위: %, 자료: 리얼클리어폴릭스	
	트럼프 격차 해리스
애리조나	48.4 0.9%P 47.5
네바다	47.8 1.0%P 48.8
위스콘신	48.0 0.4%P 48.4
미시간	48.6 0.8%P 47.8
펜실베이니아	48.4 0.3%P 48.1
조지아	48.7 0.8%P 47.9

워싱턴 날씨 (°F)

15일(화)	56~42	18일(금)	67~42
16일(수)	58~40	19일(토)	70~44
17일(목)	62~37	20일(일)	73~49

10월 14일(월) 65~4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재개발/분할/임대/리모델링
SOLD

CBMC Korean CBMC of North America

CBMC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1부 : 2024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BOI 리포트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따릅니다.
- * 벌금은 하루당 \$5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0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부 : CBMC란 무엇인가?

강사 안일송 변호사 / 김경태 회계사
일시 10월 25일 (금) 오후 6시 30분
장소 MARYLAND INNOVATION CENTER
6751 Columbia Gateway Drive
Columbia, Maryland 21046

문의 kryptaxinfo@gmail.com
240-252-9825 (MD)
703-303-5542 (VA)

신청 http://promo.websiteinnovator.com/cbmc-seminar
혹은 전화기를 사용하여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후원: KCBMC 동부연합회 - 엘리콧시티, 락빌, 디씨, 콜럼비아, 센터빌, 페어팩스 Y지회

3P CONSULTING
PURPOSE · PASSION · PROFIT

“우리의 기도가 계속된다면 부흥의 역사 다시 일어날 것”

제19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성황

워싱턴한미국가조찬기도회(회장 정승욱, 이사장 서욱자)가 지난 19일, 메릴랜드 엘리엇시티 소재 벨렐교회(담임 목사 백신종)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열아홉번째 정기기도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를 염원했다.

정승욱 회장은 시편 34장 14-6절을 인용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한다”면서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5장9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은 단지 당사자 국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쟁을 종식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린티아 분(수도권 국가 기도회 날의장) 박사가 “하나님이 역사해 전세계에 평화가 깃들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한, 벨렐교회의 김지우, 아

리린 어린이가 구약(시편 34장14-16절), 신약(마태복음5장7-9절) 말씀을 봉독했다.

미국 및 한국 국가 제창에 이어 주미대사관 조기중 총영사와 백악관 신앙기반 이웃 협업담당 토마스 보웬 상임고문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아루나 밀러 부지사,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 마크 장 메릴랜드 하원의원, 류응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등이 대거 참석해 추사를 전했다.

밀러 부지사는 “한인들이 40여 년전 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재와 같은 성취를 얻어 전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를 개최하는 것처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 수백만명의 한인이 곳곳에서 커다란 성취를 이루게 됐다”면서 “메릴랜드는 최초의 유색인종 주지사와 최초의 아태계(AAPI) 부지사를 배출하는 등 오늘도 계속해서 소수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며 정의와 평등, 나아가 더 큰 평화를 일궈나가고 있다”고 전

했다.
한미국가조찬기도회 고문인 류응렬 목사는 “우대인들은 고난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며 기도했다”면서 “우리 민족도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전쟁 등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욱자 이사장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기조연설자 모스 탄 전 국제범죄전권특명대사는 “신앙의 불모지였던 한반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첫발을 디딘

후, 순교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됐으나 암울한 시대에도 평양에서 대각성 부흥이 일었던 이유는 신자들의 간곡한 기도 때문이었다”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된다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평양에서 다시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아시아의 기독교 성지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용 목사(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의 봉헌기도 후, 벨렐한국교회 합창단의 특송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안지웅 목사(새소망교회) 주도로 진행된 합심기도 순서에서는 ‘한국 대통령과 북한을 위해(박 엘리사 목사-워싱턴교회협의회 회장)’, ‘미국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송제우 목사-워싱턴기독교연합회 대표)’, ‘세계선교와 박해 받는 자들을 위해(이킨타요 엠마뉴엘 목사-GRA 미션스)’, ‘젊은세대와 미래 리더를 위해(윌리엄 글래스 박사-캠카스터바이블 칼리지 교수)’ 통성으로 하나되어 기도했다. 이어서 박주용 박사가 공지사항을 전하고 다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한 후, 백신종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한기덕 장로(북미주 KCBMC 제15대 회장)가 조찬감사기도를 드리고 나서 교제



1 정승욱 회장 2 서욱자 이사장 3 류응렬 고문 4 모스 탄 대사 5 아루나 밀러 부지사

“미국 새 정부와 핵연료재처리시설 확보 추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열려 “독자 핵무장은 정부 입장 아니다”

조현동(사진) 주미대사가 지난 11일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핵에너지 재활용과 관련한 이슈인 동시에,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안보 이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미 간에는 상업용 원전 협력 과제가 대두되고 원전 관련 이슈가 전체적으로 협의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할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어 원전 내 수조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

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만 일부 허용된 상태다.

반면에 일본은 이미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조 대사의 발언은 미국의 대선 이후 들어설 새 행정부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시도할 뜻을 내비친 말로 풀이된다. 조 대사는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관련해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며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보유 시도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

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은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조원희 기자

OMNI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엇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판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50년간 한인 사회의 눈과 귀... 아시아계 최고 미디어 포부

올해 창간 50주년을 맞은 미주중앙일보가 미국 주류 사회 속 아시아계 최고 미디어로 도약하기 위한 대장정을 선언했다.

미주중앙일보는 10일 오후 6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오드리 어마스 파빌리온에서 창간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 LA타임스 테리 탕 편집국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와 미주중앙일보 애독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 중앙일보에선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는 이날 '비전 선포'에서 한인 사회와 한류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미주중앙일보의 저변을 미국의 주류 사회로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대표는 "한인 2.3세는 물론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가진 많은 미국인에게 다가가며 커뮤니티를 더욱 확장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한인 사회 소식을 영어로 전달하는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념식이 10일 LA 한인타운의 오드리 어마스 파빌리온에서 35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 더 중앙그룹 홍정도(가운데) 부회장, 미셸 스틸(왼쪽) 연방하원의원, 단 리(오른쪽) 액티비티USA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상진 기자

남 대표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인 사회 안팎의 뉴스를 특화해 전달하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풀리처상 수상에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계 언론사도 규모에 상관없이 아이디어와 발품이 있다면 수상하는 전례가 있다"며 "이를 통해 얻는 영향력과 목소리는 미주중앙일보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모

두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50년 동안 한인 사회에 눈과 귀가 된 중앙일보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희망과 꿈을 응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은 "100년이 넘는 한인 이민 역사에서 중앙일보의 역할은 무척 컸

다"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 풍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정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캐린 베스 LA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중앙일보는 한인 사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성실히 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미주중앙일보와 콘텐츠 교류

중인 LA타임스의 테리 탕 편집국장은 "소수계 언론은 몸속의 핏줄처럼 커뮤니티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향후 50년에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한국계로는 처음 미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에 출마한 앤디 김 하원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앙일보가 한국과 미국,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50년 동안 해온 것에 놀랍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와 소식을 제공해 한인 사회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도 부회장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지난 50년간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텐데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함께할 50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미주중앙일보는 풀리처 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취재를 위해 지원에 나선 김영석 3플러스 로지스틱스 회장, 박충환 USC 석좌 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인성 기자

“한인사회 뉴스·정보 전달에 충실”

9월 소비자물가 2.4% 상승... 3년 7개월 만에 최저



캐린 베스 LA 시장은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이 한인사회 전체의 '골든(50년) 애니버서리(golden anniversary)'가 됐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공무 일정으로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베스 시장은 10일 오드리 어마스 파빌리온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통해 "50년 동안의 미주중앙일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성실히 전해왔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45지구)이 참석해 미주중앙일보의 성공적인 50년 역사에 감사를 표시했다.

스티븐 의원은 "정치권에서 일하면서 소수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

을 하는지 항상 깨닫는다"며 "한인사회에 소식과 정보를 성실히 전달해 준 언론인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테리 탕 LA타임스 편집국장은 "소수계 언론은 몸속의 핏줄처럼 커뮤니티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의 50년에도 콘텐츠 교류 등 여러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자"고 발언했다.

현재 뉴저지 연방 상원에 출마한 앤디 김 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중앙일보가 한국과 미국,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50년 동안 해온 것에 놀랍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와 소식을 제공해 한인사회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0일 노동통계국은 9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2.3%)를 소폭 웃돌지만, 8월 상승률(2.5%)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지난 2021년 2월(1.7%)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집계됐다.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및 전월 수치(3.2%)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로 예상치(0.2%)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이번 물가 지표가 11월 기준 금리 결정 방향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주목해왔다. 9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

낸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 기준금리 동결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정체되긴 했지만,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11월 '메이비켓(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시장은 11월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효정 기자

조병태 회장 '장보고대상' 수상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이 '제3회 한상 모국기업인 상생파트너십 대회'를 지난 9일(한국시간)부터 한국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엔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첫 행사로 열린 '제9회 장보고한상 어워드(이하 장한상) 시상식'에는 김덕룡 이사장과 역대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한상은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

모자왕 소네트그룹 운영 성공적인 경제활동 공로

영토를 해외에 확장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재외동포경제인 가운데 거주국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 한상을 '21세기 장보고'로 인증하는 상이다.

시상식에서 대상은 조병태 미국 소네트그룹 회장, 국회의장은 중국 남



한국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엔리조트에서 열린 '2024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에서 조병태(왼쪽 6번째) 소네트그룹 회장을 포함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보고글로벌재단 제공] 기학 예지아기술그룹 회장이 받았다.

K 로펌 콕태우 변호사

“풍부한 실무경험과 폭넓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20여년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법 | 기업법 | 상업용 부동산법

이민

비즈니스 세틀먼트

회사설립

상속

리빙트러스트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703.712.7151
571.405.6540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alexkwakesq@gmail.com



CUCKOO

10월 프로모션

FALL IN CUCKOO

기간 9.27.2024 - 10.29.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10월 내 설치

10월 한정

3 HOT DEALS

SPECIAL GIVEAWAY

~~\$999~~ → \$549

+1년치 필터제공



펫 드라이어

Special Offer 1

특별가 \$449

+1년치 필터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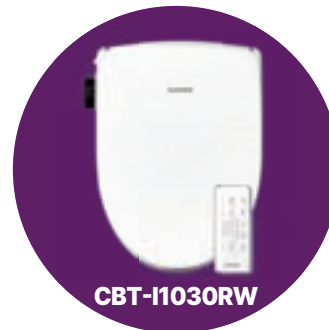


마이크로 버블 클렌저

Special Offer 2

BUY ONE GET ONE

50%



CBT-11030RW

Special Offer 3

*해당 제품과 건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일시불 또는 렌탈 계약 SALE

일시불 구매 최대 30%할인

*해당 제품과 건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렌탈 계약 다운페이 OFF

* 렌탈 건 수에 따른 해당 사은품 증정

Special Giveaway



안마의자 SALE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 HP 압력 밥솥 증정



Special Giveaway

*3D의 경우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설명회

2025년도 변경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설명회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 ~ 4시

장소 페닌슐라 한인회관 (경성식당 옆 2층 건물)
13750 Warwick Blvd., Newport News, VA 23602

문의 재무부장 최기아 (757) 846-1803
회장 임호순 (757) 714-6134

주관 페닌슐라한인회

상담예약: 703-973-5900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야당 “윤 대통령 부부가 본질” 여당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11일에도 ‘명태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숨은 실력자 명태군씨의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보수 상당수를 초도화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쏟아지고 있는 명씨의 의혹의 본질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말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불리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두 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 걸 문제 삼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대의원 56만8000여 명의 연락처를 입수해 2021년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당원 11만7829명(1차), 13만9156명(2차)에게 전화(ARS)해 각각 3450명, 5044명에게

서 응답을 받았다. 노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세론을 유포하는데 쓰였다면 여론 조작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비화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확보한 건 입말하겐 ‘당원 명부’라고 보기 힘들다. ‘김**’, ‘남성’, 서울 종로구, 0503-6065-7820’ 형태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전화번호도 유효기간 20일까지 안심번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상번호)여서다. “(무작위로) 여론조사 전화나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민주당에선 ‘비공개 여론조사’를 문제 삼지만, 통상 대규모 선거에선 참고용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잦다.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미래한국연구소 조사는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

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원 연락처를 확보한 경위에 대해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대선 경선 당시 당원 연락처는 이동형 저장장치(USB)를 통해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전달됐다. 캠프에서 여론조사 차원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제공한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조사에 따라 필요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고 주장한다. 김종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가한 근거다.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던 시절 명씨가 나에게 전화해 김 여사를 바꿔줬다”며 “김 여사가 ‘남편을 만나달라’고 부탁해 7월 4일 저녁 약속을 잡아 처음 만났다”고 했

다. 김 전 위원장은 “식당에 갔더니 명씨가 있더라. 그 자리엔 김 여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5월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김 여사 초대로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명씨를 대선 전부터 신뢰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JTBC를 통해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도 부각하고 있다. 명씨는 김 여사에게 “김해(갑)에서 5선 의원(김영선 전 의원 지칭)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아홉 차례 보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서 설득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 차례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7개월간 연락을 취했다면 그건 비선 아니냐”고 했다.

여론에선 김 여사와의 관계만 부각하는 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

다. 실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 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가까웠고 대선 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선 안철수의원과 최진석 당시 상임선대위원장과도 만났다. 최근 7·23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선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과도 소통했다. ‘정치 브로커’(홍준표 대구시장)란 것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전후 잠깐 대통령을 도운 것 외에는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며 “대통령 부부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선 공천’ 논란에 대해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문제이긴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이 안 되지 않았느냐”며 “여사가 명씨 요청을 거절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명씨 거짓 주장에 편승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김효성 기자



거야, 국감 증인 무더기 고발동행명령장 사흘새 8건 발부

국정감사 5일째인 11일 거야(巨野)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이어 고발 조치까지 더해져야 여당에선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국감도중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8일 실시된 교육위 국감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당일 설 교수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설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택과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고, 김지용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고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허사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한 뒤 김영호 위원장 등 야당 의원 주도로 고발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 부산에서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7월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 조치를 요구한 걸 “의료진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았다.

야당은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인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하고 있다. 국감 첫날인 7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9일 한글날 제외)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8건으로 이미 지난해(3건) 기록을 넘어섰다. 동행명령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연평균 2.6건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 국회 권력

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면 백번 하겠다”라며 “지금은 (해당 사건이) 정쟁화되다 보니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다. 수사 결과를 지켜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현 육군사관학교 정채연수생)에 대해 “보직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이미 보직이 끝났기 때문에 보직해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유정·윤지원·최서민 기자



윤 대통령 마중 나온 한동훈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 등 5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단둘이 만나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뇌출혈로 숨진 구청장 보선에 “혈세 낭비”... 민주당 김영배 사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제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가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일자 사과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징계기로 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발언을 해야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 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역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짝 어울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의 아들이 “구청장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가. 유족들에 대한 모독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10여 일 만에 숨졌다.

여론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우리, 사람 되는 거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고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

인도 “민주당은 고인이 된 분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패륜적 작태를 보이며 자신들의 찬밥함을 드러내 보였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후 9시30분쯤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에게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계속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 시간 뒤 재차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다.

김효성·김은빈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개인 세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p style="background-color: orange;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사업체 세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p style="background-color: green; color: white; padding: 5px; font-weight: bold;">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	--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북한 '무인기 침투' 연일 공세... "대남 적개심 끌어올리려는 것"

>> 1면 '무인기'에서 계속

이러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군사행동의)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11일 "10월 3·9·10일 심야에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며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흐리게 처리하긴 했지만, 김정은 부녀의 명품 착용을 다룬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최고 존엄 모독'을 담은 전단까지 공개한 건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북한은 이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김여정 담화를 실으면서 "온 나라가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며 "괴뢰 한국 쓰레기들이 천추에 용납 못할 짓거리들 감행했다는 소식에 접하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KBS



김정은 부녀, 당 창건 79년 공연 참석 노동신문은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79주년 경축공연이 10일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성대히 진행됐다"며 공연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 셋째)과 딸 주애(왼쪽 둘째)의 사진을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간부 혁명화'를 강조했다. [뉴스1]

일요전단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하는 게 내부 통제에 이점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정권에 지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라며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군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수의 정보 소식통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무인기 침투를 군이 선제적으로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간단체가 벌인 일일 가능성도 있다. 기술적으로 민간 무인기를 평양까지 약 140km를 날려 보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연이어 세 차례나 성공적으로 평양 상공에 진입시킬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민간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고가의 고정 무인기가 담긴 점도 의심스럽다.

북한의 과민 대응에선 초조함도 묻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은 "참변"을 거론하면서도 담화를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반복되는 도발 시" 등 조건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긴장 완화보다는 강경 대응에 더 방점을 찍는 듯한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당

초 북한 외무성 발표 후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이 아니다"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두 개의 입장을 검토했다고 한다. 후자로 가닥이 잡힌 건 북한의 의도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놓고 북한과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자칫 남남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모호성을 통해 북한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심리전' 효과를 의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위를 떠나 북한이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단절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당위성을 부여하거나 도발의 빌미로 활용할 게 자명한 가운데 이런 대응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분위기다. 역제력을 강조하는 측면이지만, 일각에선 위기관리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한 모두가 지금처럼 역대급 대결 자세를 유지할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관평·박현주 기자

금리인하, 자영업자에 '가뭄 단비'지만... "내수부활까진 시간" (0.25%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침체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효과가 기대만큼 시원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2021년 8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피벗으로 가계·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약 6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전반에 무차별 파장을 미친다.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과 자영업자·서민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가 이른 시일 내 살아나기 어렵다는 예다. '피벗 한계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먼저 피벗의 강도가 미국(0.5%포인트 인하)에 못 미친다. 미국(정책금리 연 5~5.25%)과의 금리 차는 여전히 최

내수 피벗 한계론, 이유는

전문가 "경기부양할 정도 아니다" 기업·가계 여윌 돈, 시중에 안돌아 "경제구조 개혁·생산성 제고 필요"

대 2%포인트 벌어져 있다. 시점도 미국(9월)은 물론 유럽(6월)에 뒤졌다. 게다가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금리 인하는 맞지만, 금융 안정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매과적 인하'를 언급할 정도로 향후 금리 인하에도 소극적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0.25%포인트 인하는 경제를 압박한 고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취지다.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급격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며 "금리 인하가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같은 속도·크기로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효과를 피뜨리는 '모세혈관'인 은행도 변수다.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져야 내수 진작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창구금리' 인하에 미온적이다.

여전히 낮은 '통화승수(乘數)'도 내수를 살리는 데 걸림돌이다. 통화승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 통화(본원통화)로 나눈 값이다. 한은이 1원을 공급할 때 창출하는 통화량을 배수로 나타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통화승수는 14.8배다. 2009년 24~25배에서 2019년 15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재정을 확 풀었는데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내려 시장에 돈이 풀리더라도 가계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내수 진작 효과가 배가된다. 하지만 세수 부족 상황이라 쉽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부진 문제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추세,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맞물려 있다"며 "피벗이 단기 경기 부양책에 그칠 수 있는 만큼 결국 경제구조 개혁과 생산성 제고로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4대 은행 주담대금리 2.9 → 3.8% '역주행'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금융소비자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한 지난 11일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연 3.81~5.73%)는 상당 기준 연 6% 코앞까지 뛰었다. 6월 말(2.94~4.95%)과 비교하면 9달여 만에 최고금리가 0.78%포인트 오르면서다. 주담대 하담금리도 같은 기간 0.87% 상승해 3.8%대다. 변동금리 하담도 지난 11일 기준 4.71%로 6월 말(3.74%)보다 0.9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역주행' 현상이 이어졌다. 주담대 고정 금리의 기준

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AAA등급) 금리는 6월 말 3.451%에서 지난 11일 3.304%로 하락했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후 은행이 수차례에 걸쳐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의미를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이번 주(14일주) 가산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며 "대부분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연말까지 대출총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당수 은행은 하락한 시장금리를 반영해 최근 2~3개월 사이 예금 금리를 0.2~0.45%포인트 낮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1일 기준 연 3.35~3.45%(우대금리 포함)다.

정진호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장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Blotach 세종바이오텍

703-256-7671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갭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겉에서 본 노벨상 소설가 한강

광주의 오월 그려낸 작가 부서질 듯 어려 보였다

김선영 『소년이 온다』 책임편집자, 출판사 핀드 대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는 퇴근길 강변북로 위에 있었다. 길게 늘어진 차량의 붉은 브레이크등을 졸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을 때였다. 좋아하는 라디오가 끝난 뒤에는 듣고 싶은 게 없어 하품을 길게 하기도 했다. 그때 운전석 거치대에 꽂아둔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한강’ ‘노벨상’ ‘최초’ 같은 단어들 이 메시지 미리보기 알림에 떴다가 사라졌다. 짧게 사라진 단어들만 보고도 비명을 질렀다.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뒀다. 이 상황을 형용할 단어가 내게는 없었다. 악, 으악, 우아 같은 감탄사를 차례로 내뱉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을 타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년 노벨 문학상을 기다렸지만 언젠가가 올 때가 될 줄은 몰랐다. 당연하게도 이 순간 가장 기쁜 사람은 작가 본인이었지만 오늘날만큼 이 역사적인 기쁨을 온 국민이 나눠 누리면 좋겠다. 나도 오

늘만큼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편집자로서 뿌듯하게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 자람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지만 이 작품만은 출간 전부터 나의 자랑이고 자부였기에 가까이 축배를 드는 마음이 되었다. 『소년이 온다』는 내게도 무척 특별한 작품이다. 책장에서 『소년이 온다』의 조판본을 꺼내들며 한강 작가와 함께 책을 만들던 때를 떠올렸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매일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의 소설을 올리던 십년 전 겨울을.

『소년이 온다』는 출간 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참비문학블로그 ‘창문’에 연재한 작품이다. 한강 작가는 업로드 몇 주 전에 미리 일정 분량의 원고를 보내주었고, 여유롭게 교정을 보고 편집 내용을 주고받아 반영할 시간까지 넉넉했다. 언제든 쉽게 고칠 수 있는 온라인 연재였지만 어떤 지면이 되었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작가의 작업 방식에 꽤 감명을 받았다. 온라인 연재 내용을 그대로 조판해서 내도 충분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화의 연재에 작가의 진심이 담겼다.

행갈이의 지점, 여러 번 고심해 고친 단어는 물론이고 구두점의 위치 하나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놓인 것이 없었다. 연재를 하면서 한강 작가와 거의 매일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했다. 연재를 하는 겨우내 출간한 뒤 가장 처음 하는 일은 업로드한 소설을 모니터링하면서 작가와 아침인사를 나누는 것이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모니터를 바라보면 화면 너머로 앙상한 겨울나무가 펼쳐진 파주출판단지의 심

학산 자락이 보였다. 어떤 날에는 눈이 덮였고, 어떤 날에는 강추위로 세상이 다 얼어붙은 것 같았다. 광주의 오월을 그려내는 한강 작가의 마음이 저 장박과 같을 거라고 종종 떠올리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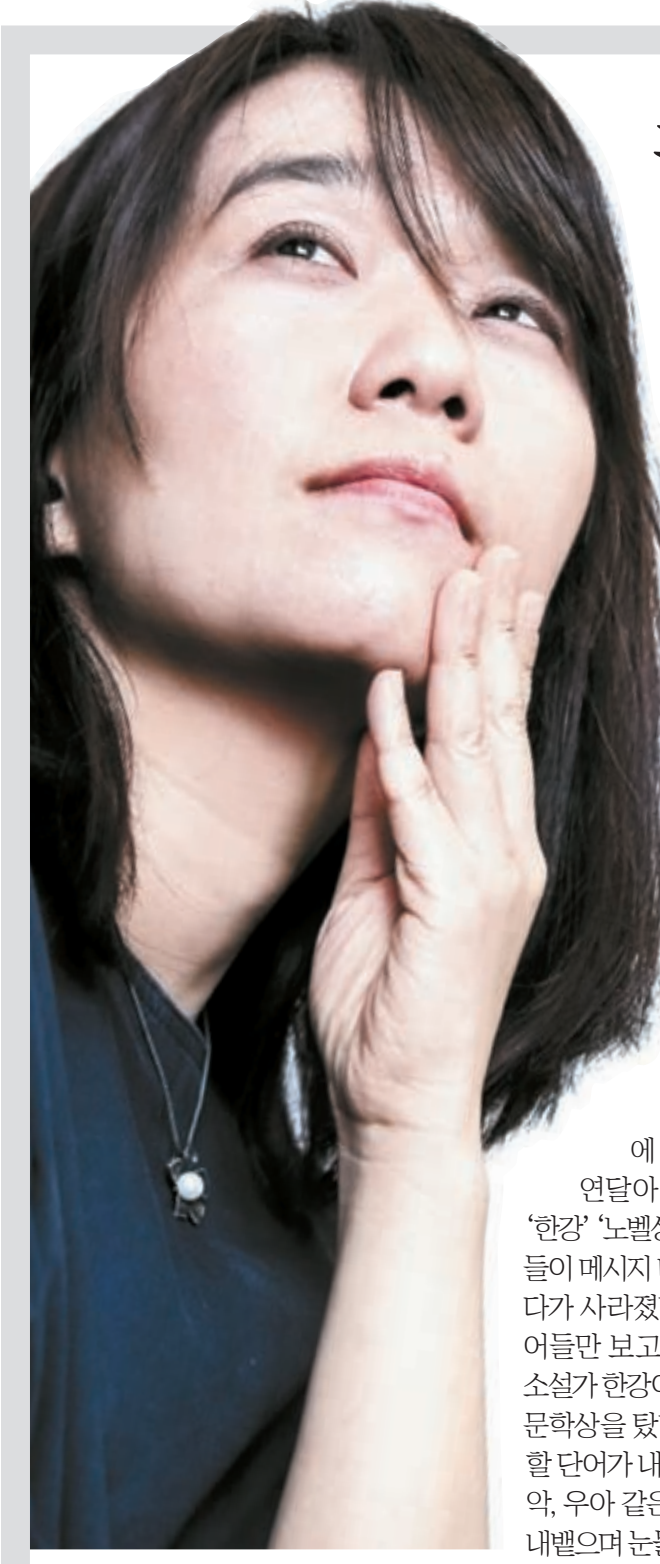
나는 내가 이 작품의 첫 번째 독자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다. 원고가 도착하면 출력을 하는데, 출력물을 들고 프린터기에서 책상 서너 개를 거쳐 내 자리로 돌아가던 길이 조금 설레기도 했다. 그건 독자들이 매일 연재를 읽는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편집 생각은 넣어두고 그저 눈으로 읽던 첫 독서의 순간, 그때 나는 많이 울었다. 작가에게 보내는 메일에 감상을 적을 때마다 이 인물들을 힘겹게 그려내고 있는 작가의 안부가 자주 걱정되었다. 여전히 5·18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작가를 위로해줄 사람은 첫 번째 독자인 편집자일 것이기에, 메일을 주고받는 횟수가 늘면서 이런 마음을 더 자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어서 연재가 끝나기를, 작가가 열린 이 작품을 털어버리고 좀 평안한 마음이 되기를 바랐다.

작가와 직접 만난 것은 연재를 다 마치고 난 뒤였다. 수개월 동안 메일을 주고받고 통화를 해서인지 오래 빈 분 같았다. 사진 속 예쁜 미소의 환한 얼굴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작품에 모든 것을 쏟아낸 듯 마르고 지친 몸과 마음이 확연히 보여 가슴이 아팠다.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주검들의 말 없는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는 소설 속 열다섯 소년이 겹쳐 보였다.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소설 속 인물들을 애도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혼신의 힘을 다하다’라는 관용구를 눈으로 직접 본다면 아마 당시 작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느긋한 음성엔 조금 후련한 듯 들리기도 했다. 얼마나 괴롭고 지리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을까. 하물며 그 일이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힘겹게 펼쳐 보이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시대를 증언하는 숙명과도 같은 소명을 다하는 작업이었으니. 작가와 헤어지고 인사를 나누며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마 단둘이 만났다면 한번 안아드렸을 것 같다고 뒤늦게 생각했다. 꼭 안으면 부서질 듯 어린 상태라 아마도 가볍게 등을 쓸어드렸을 것이다.

연재 원고를 주고받던 그 겨울에 나는 작가 한강이 매일 문학을 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본 한강은 송고한 구도자였다. 마치 간절할 기도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진실을 향한 진심이였다. 연재 원고를 단행본으로 묶는 작업을 하며 한강 작가가 그림 한 장을 건네준 적이 있다. 작품의 의미와 이미지를 잘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검고 어두운 바탕에 기도하는 모양으로 가만히 모은 손을 그린 그림이었다. 기도하는 손 주변이 환했다. 책을 만드는 동안 그 그림을 책상 앞에 걸어두고 자주 바라보았다.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장면을 속에 한강 작가의 깊은 울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목격했던 그 매일매일의 감동이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것만 같다. 우리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연재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꽤나 통쾌하고 자랑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매일 읽는 삶을 꿈꾼다.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소년이 온다』 중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한강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사진은 2016년 기자회견 모습. 박종근 기자

“우리 딸이 언젠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름처럼 크게 됐네요.”

원로작가 한승원(85)이 11일 전남 장흥군 자택에서 한강(54)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밝힌 소감이다. 그는 “내 생전에 딸이 노벨상을 받았으면 했는데 받아서 기쁘다”며 “딸이 등단했을 당시 첫 단편 글을 보고 ‘나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승원은 고향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해산토굴’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하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해산토굴은 한승원 작가의 작업실이자 거주 공간

한승원 “딸, 전쟁으로 사람 죽는데 무슨 잔치냐고 해”

(한강 부친)

이며 ‘해산’은 그의 호다. 한승원은 “강이 소설에는 (우리 세대) 작가에게 없는 신화적인 것, 문화인류학적인 그윽한 정서가 있다. 문체가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다”며 “전통적인 리얼리즘을 이어받아 섬세하게 묘사하는 힘이 뛰어난 데다 신화적이고 문화인류학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현한 게 서구 심사위원을 매료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세대 작가는 발자크 같은 유럽 소설가의 영향을 받아 리얼리즘 소설을 주로 쓰는데, 리얼리즘 소설은 저항 소설이고 다큐멘터리 같은 소설”이라며 “그런 소설은 유럽에 많이 있는 것이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는데 한강은 새로운 문체를 서구에 선보여 호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딸)의 언어와 내 언어는 다르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희랍어 시간』을 읽어보면 시적인 감성이 승화된다”고 평했다.

2016년 5월 한강이 한국 최초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을 때도 그는 “(한강은) 나를 뛰어넘었다. 소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했다.

한승원은 “한강처럼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강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그런데 어릴 때 ‘낙동강, 대동강’ 등으로 놀림을 받은 탓인지 등단할 때는 뒤에 ‘어질 현(賢)’ 자를 붙여서 ‘한강현’이라고 응모를 한 기억이 난다.

이름처럼 크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승원은 또 딸이 노벨 문학상 수상에 공식적으로 기쁨을 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죽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강이) 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며 “기자회견을 안 할 것이니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장흥=최경호·황희규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한강 이펙트 ... 세계 문학계 '포스트 한강 누구냐' 주목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간 세계 문학의 변동기에 머물렀던 한국 문학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이 불티나게 팔리고, 아직 번역되지 않은 한강 작가의 책을 번역하겠다는 의뢰도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한강 이펙트(효과)'가 국내외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한강'은 누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노벨문학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한국 문학의 가장 큰 사건은 2016년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이었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영국 맨부커상 수상의 효과는 대단했다. 이를 계기로

외국 문학계가 한국 작가의 작품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해외 독자의 관심도 급격히 올라갔다.

한국문학번역원 자료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이후 8년간 한국 작가들은 국제문학상(만화상 포함)에서 31차례나 수상했다. 2017년엔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이탈리아 말라파르테상을 받았고, 2018년 황석영의 『해질 무렵』이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을, 김혜순은 2019년 『죽음의 자서전』으로 캐나다의 그리핀 시문학상을 차지했다.

노벨상 수상의 파급력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장은수 편집문학실 협실 대표는 "앞으로 한국 문학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 문학 편집자가

주목할 것이다. 세계인이 BTS의 음악을 아는 것처럼, 문학계에도 전 세계가 아는 '삼성전자'가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날, 일제 강점기를 그린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최고문학상인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도 "한국인들의 깊고 뜨거운 영혼이 세계에서 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며 이번 수상으로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AFP도 "아카데미에 이어 TV드라마와 K팝 스타들이 세계시장을 점령했

고, 이제는 노벨문학상마저 (한국어)가 쳐갔다"면서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문을 연 한류가 BTS 등 K팝 스타의 팬덤으로 힘을 얻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도약해 어엿한 세계 문화 속의 '메이저'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강에 이어 앞으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작가는 누구냐. 이광호(문학평론가) 문학과지성사 대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아시아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세계 문학계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벨문학상에서 한강 작가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사람은 미국과 유럽에서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김

혜순 시인이다. 김 시인은 지난 5월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으며, 2022년에는 영국 왕립문학협회의 국제작가로도 선정됐다.

소설집 『저주도끼』로 2022년 영국 맨부커상 국제부문과 2023년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2018년 소설 『홀』로 미국 셸리 잭슨상을 받은 편혜영, 2021년 『밤의 여행자들』로 영국 대거상 번역추리소설 부문을 아시아 작가 최초로 수상한 윤고은, 제일 조선인의 삶을 그린 『파친코』로 2017년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던 이민진 등도 해외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영희·홍지우 기자



1 노벨상 수상 작가 한강의 서울 종로구 자택 앞에 13일 시민들이 보내온 축하 화분들이 놓여 있다. 2 같은 날 한 작가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독립서점 '책방오늘'을 찾은 시민들이 임시 휴업 중인 서점 내부를 들여다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주영 한국문화원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대형서점 포일스 채링크로스 본점에 '한강 특별코너'를 설치했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이곳에서 오는 31일까지 '한국 문화의 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뉴스1]

『소년이 온다』 필사 챌린지 ... "초판 40만원" 거래도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국내에 '한강 신드롬'이 불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단순히 작품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필사를 하며 작품을 즐기는 챌린지가 유행이다. 한강 책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불경기에 시달리던 인쇄업체들은 오랜만에 주말까지 반납해 하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인스타그램과 'X' 등 SNS에는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작품의 필사 '인증샷'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필사 인증샷을 올린 정채영(29)씨는 "(필사 챌린지는) 좋아하던 작가의 뜻깊은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 작가가 2021년 인터뷰에서 추천곡으로 언급한 플레이 리스트까지 '역주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고(故) 김광석의 '나의 노래', 악뮤(AKMU)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등이다. 한 작가는 "평소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라며 소설 집필 과정에서 들은 이 곡들을 소개했다. 13일 음원 플랫폼 멜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기 순위 34위였던 악뮤의 곡은 13일 오후 4시 기준 22위까지 상승했다.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필사한 '인증샷'

작품의 인기로 도서관과 서점에서도 한강의 작품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날 오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내 도서관 3곳에서는 모두 한강 작품을 대여할 수 없었다. 마포평생학습관 한 관계자는 "한강 책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예약도 10명이 넘는 상태라 한두 달은 지나야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작가 한강이 쓴 책들이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만 50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교보문고와 예스24 모두 1~11위까지 한강의 시와 소설이 휩쓸었다.

작품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면서 일부 인쇄공장도 평소와는 달리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인쇄공장을 둔 한영문화사가 그중 하나다. 2021년 『작별하지 않는다』 출간

당시 초판 1쇄를 제작한 업체로, 수상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 10일 밤 15만 부 발주를 받았다. 직원 60여명 대부분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인쇄기를 돌린 끝에 겨우 출고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인근 인쇄공장 50여 곳 대부분이 문을 닫은 주말이지만, 13일 이곳에선 기계들이 쉬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10여 명의 작업자가 페이지 숫자를 맞춰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제본기계가 야교를 이용해 책 모양으로 페이지를 붙인다. 이후 표지를 씌우고 띠지를 두르는 작업까지 끝나면 30권씩 묶어 포장을 마친다. 이날 공장에서 만난 송영천 차장은 주말 내내 쉬지 못해 눈이 별경게 충혈된 채로 "한강 작가가 부커상을 탄 2016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강의 작품을 고가에 내놓은 중고 거래도 유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는 "한강 채식주의자 초판 1쇄 저자 서명본 50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미 40만원에 판매가 완료된 글도 있었다. 작가의 다른 대표 작품의 초판 인쇄본 역시 10만~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랐다. 이보람·이찬규 기자



'한강 노벨상' 수상 그는 먼저 알았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화제가 된 그림이 있다. 수상자를 발표한 노벨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강의 초상화다. 중단발의 머리, 노란 황금빛이 감도는 얼굴, 은은한 미소를 띤 이 그림은 스웨덴 출신의 화가 니콜라스 엘메헤드(사진)가 그렸다.

12일 엘메헤드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스웨덴 왕립예술학교 출신인 그는 매년 10월 초가 되면 분주해진다. 노벨상 수상자의 초상화를 도맡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스웨덴 노벨위원회의 미디어부야 예술감독이 된 2012년부터 해 온 일이다.

초상화를 그릴 시간이 필요하기에 엘메헤드는 심사위원들을 제외하면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먼저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렇다고 소식을 아주 빨리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발표 직전야 명단을 공유 받는 것으로 보인다. 엘메헤드는 "안타깝게도 노벨위원회의 기밀 정책으로 정확한 시간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내가

꽤 빨리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5분 만에 초상화를 그린 후 즉시 뉴스룸으로 달려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노벨상 수상자 초상화가 노벨위원회의 공식 이미지가 된 건 일부 수상자, 특히 과학계 인사들의 사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엘메헤드는 "많은 과학계 수상자의 사진을 검색하면 전 세계 어딘가의 웹페이지에 있는 저해상도 이미지였다"며 "형편없는 카메라로 찍은 직원 페이지에서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엘메헤드는 "수상자가 초상화를 보고 좋아하거나 화난 적 없느냐"는 질문에 "수상자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은 적이 없다"며 "수상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뒤 너무 바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자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그린 모든 노벨상 초상화에는 그의 이름을 뜻하는 'NE'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승호 기자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w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상담 내용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우리말 바꾸기

돈을 받칠까? 바칠까?

팔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번 돈을 고스란히 갖다 ().
 ㉠받쳤다 ㉡받혔다 ㉢바쳤다 ㉣받쳤다
 별생각 없이 받음을 따르다 보면 ‘갖다 받쳤다’고 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정답이 아니다. ‘받쳤다’의 원형인 ‘받치다’는 물건의 밑·옆 등에 다른 물체를 대거나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쟁반에 커피를 받쳐 들고 왔다” “배경음악이 그 장면을 잘 받쳐 주었다”처럼 쓰인다.
 ‘㉠받혔다’는 어떨까? ‘받히다’는 ‘받다’의 피동사다. 사람 또는 물체의 한 부분이 다른 것에 세게 부딪히거나 머리·뺨 등에 받음을 당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우회전 차랑에 받혀 부상했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정답은 ‘㉢바쳤다’이다.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는 의미도 있다.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등처럼 쓰인다. 따라서 누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돈을 갖다 바쳤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받쳤다’는 기본형이 ‘받치다’이며, ‘받다’를 강조한 말이다. ‘받다’는 건더기 또는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 받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경제 안테나

주거비용 상승폭 둔화의 의미



손성원 서울대 매리마운트대 교수, SS이코노믹스 대표

마침내 ‘주거비 인플레이션(shelter inflation)’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연방노동통계국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9월 주거비용은 0.2%가 올라 8월의 0.5%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전반적인 임대료 인상폭이 둔화했고, 주택 임대료는 오히려 하락한 영향이다.
 주거비용의 상승 둔화는 반가운 현상이다. 주거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비용이 오르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된다.
 주택 가격도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건축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역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남은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이 과제다. 연준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몇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고용 시장이 호황이면 기업 간의 치열한 구인 경쟁으로 임금도 오르게 된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2022년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여파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demand - full inflation)’을 불러왔다. 임금 상승으로 가져온 소득이 늘어났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초

래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직원 임금을 올리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면 인건비 부담은 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상당한 폭의 임금 인상 협약이 체결되면 산업 전반의 임금 기준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임금 인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결국 임금 인상은 생산 비용을 높게 되고, 기업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커졌다. 유가의 상승은 운송, 제조업, 에너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가가 오르면 상품 생산과 운송 비용이 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용 상승이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다. 유가 상승의 충격은 상상 이상

으로 클 수 있다. 원유는 의약품부터 플라스틱 장난감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다.
 운송과 유통비용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또는 다른 요인으로 운송비가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상품 유통에도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 역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이것 역시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2%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과열 없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다양한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박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발생하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 달성은 어렵게 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압력이 지속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연준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비용 상승 요인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2%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요약하면, 공급 측면의 비용 상승과 수요 측면의 임금 압력이 결합하면 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 수요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J네트워킹

연이어 닥친 허리케인... 대형 재난의 선거공학



김형구 워싱턴총국장

대형 재난이 닥치면 정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터진 재난 재해와 정부의 대처 능력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심판 척도가 된다.
 미국도 그랬다. 2005년 8월 미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최소 1380명의 인명 피해(사망·실종)를 냈고, 대응 및 피해 수습 과정에서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듬해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반면 2012년 대선을 일주일 남겨놓고 허리케인 샌디가 닥치자 대책회의를 진두지휘하고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당시 뉴저지 주지사와 피해 현장을 돌며 재난 대응 사령탑 이미지를 부각시킨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막판 부동층 표를 흡수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2주 전 핵심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를 포함한 남동부를 휩쓸며 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헬렌이 이어 또 하나의 초대형 허리

케인 밀턴이 남부 플로리다를 관통했다.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닥친 대형 재난이 ‘옥토 버스터프라이즈(10월의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피해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이든·헤리스 행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 “연방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주지사가 공화당 지역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고, “헤리스가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 10억 달러를 불법 이민자 주택 비용에 썼다”고 주장했다. 근거

가 뭘지는 대지 않았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심지어 “정부가 허리케인 경로를 조작해 공화당 우세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게 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공격이 잘 먹혀들지는 않는 모습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유력 지역지인 샬럿 옵서버는 최근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재난 상황을 정정화하며 거짓과 음모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기회가 아니다”는 경고도 했다.
 선거가 임박할 때 유권자들의 민심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활취고 간 상처가 드러나듯 투표가 끝나고 나면 민심의 매서움을 실감하게 된다. 미 유권자들도 조용히,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헤리스의 재난 대처가 어땠는지를, 그리고 트럼프가 편 재난의 정치 무기화가 타당했는지를 말이다. 그 결과가 투표할 개봉과 함께 표출될 날이 머지않았다.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박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1.9%	42.9%	2.1%	0.0%
매우좋은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꼬리뼈 sciatica 좌골신경통

손가락 Spasm of finger
 손가락 쥐
 힘어려움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땀이 많이 흘림
 피지지 않음

toes cramps 발가락 toots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필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HOA NO"

\$540,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잘 가꾸어진 밝고 예쁜집,
업데이트된 나무마루, GREAT VIEW
BELMONT BAY COM, 방3/화3

\$625,000



독점 FALLS CHURCH 콘도

아난테일 5분 거리, "GREAT VIEW"
방2/화2/세탁기/리모델링한 9층

\$3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심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Q 레몬법과 리콜에 대한 필수 정보

▶문= 현대와 기아는 최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현대와 기아는 도난과 점화 장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1억 4,500만 달러의 합의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비자는 최대 3,375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yundaiheftsettlement.com 및 Kiaheft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결함이 있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소한 문제라도 차량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일반적인 레몬법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소비자들이 자주 놓치는 문제 중 하나는 오일 소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오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모하는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 현대,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이 문제로 리콜되었습니다. 과도한 오일 소비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엔진이 멈추거나 내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 엔진 고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 오일 소비 문제로 레몬법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딜러십에 가서 오일 소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레몬법 청구를 추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2023년에 리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은 무엇인가요?
▶답= 2023년에는 Honda가 63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며 가장 많은 리콜을 기록했고, Ford가 610만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Ford 차량의 약 16%가 리콜 대상이었으며, 리콜된 차량 대부분은 지속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리콜 사유로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답= 리콜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시스템, 장비, 구조, 파워 트레인, 스티어링, 에어백, 외부 조명, 서스펜션, 서비스 브레이크, 유압
▶문=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NHTSA.gov에 접속하여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N(차량 식별 번호)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변호사

Q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시민권 신청 거절

▶문= 저는 2011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2년 정도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8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후에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답= 2015년에 ICE 이민세관 단속국이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ICE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디 학교가 문을 닫은 2015년 당시 이민국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프로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실제로 다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경

우도 있었고 프로디 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다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를 다녔던 증거물이 없거나 혹은 증거물이 부실하면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 항소하게 되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사합니다. Hearing에서 왜 지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닌

기록 때문에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을 통해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 이민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추방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빼앗기 전까지는 귀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한 후 추방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단 추방 소송이 시작된다면 귀하는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Q 대입원서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다

▶문= 대입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답= 캘리포니아주 12학년생 중 상당수는 사립대 지원서 중 하나인 커먼앱을 작성하고 있으며, UC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UC원서도 쓰고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데 큰 비용이 들지만 대입원서를 접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1000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먼앱을 통해 한 곳의 대학에 지원하면 학교에 따라 30~8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UC의 경우 캠퍼스 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가구소득이 낮은 유자격 학생들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커먼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또는 디스카운트 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가구소득이 USDA Food & Nutrition Service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거나, 해당 가정이 공적부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거나,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 SAT 또는 ACT시험을 치를 때 수수료를 면제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커먼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사이트 안에서 서명을 하는 등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UC는 지원할 때 캠퍼스 당 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9개 캠퍼스 모두 지원하면 720달러를 내야 한다. UC는 자격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4개 캠퍼스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면

제해준다. 지원자들은 수수료 면제 자격이 되더라도 5번째 캠퍼스부터는 한 곳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학생들은 UC 온라인 지원서 안에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많은 12학년생들은 커먼앱과 UC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명문 사립대 조기전형(EA, ED, REA 등)은 11월1일이나 15일 마감되며, UC원서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조기전형은 2월 중순, UC입시결과와 내년 3월 중 통보 받게 된다. 사립이나 기타 주립대 정식 지원은 내년 3~4월 결과가 나온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라,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욕 3, 2 레벨 싱글, 모번은 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 물, 전부 업그레이드, 인모넬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핫워터탱크, 새 마루, 새 카펫 (지하 방, 홀베스, 우드 fireplace) 선룸, 피라오, 워크아웃
- **풀스치치 콘도 \$249,900**
방 1, 욕 1, 전체 리모델링, 495/66/50, 모차익, 연로링 메트로
- **옥톤 싱글 렌트 \$3,900**
방 4, 욕 2, 차고 2, 아빤딩고 넓은 정원, 조물한 동네, 123/66/267/495/286, 메디슨 하이
- **스프링필드 벙들 타운 렌트 \$3,200**
방 3, 욕 3.5, 차고1, Rolling Rd/286/95/495, Fort Belvoir
- **센터빌 터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Realty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희소식!

버지니아 한인 최초!

OTC Network 승인 SAS 정식 공인 딜러



발은 제 2의 심장!

당뇨신발의 효능

- 혈액순환
- 발 변형 방지
- 혈압 감소
- 무릎 관절염 예방
- 피로도 감소
- 넘어짐 방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한국 브랜드 narzio 당뇨신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오랜 전통의 신고 싶은 신발! 최상품 가죽, 수작업으로 만든 SAS 당뇨신발

역시 한국인이 만들면 원가 다릅니다!

이쁜 기능성 신발! 한국인이 만든 패션 당뇨신발/양말 투박한 당뇨신발은 가라~ 피로가 훨씬 덜 합니다!!

* 혈액순환에 좋은 당뇨 양말도 있습니다.



FDA 승인 당뇨신발 딜러



OTC card로 구매 가능



혜택을 받으세요!

연금 보험

버림받은 목돈 노후보다는 사랑받는 평생연금노후 한국인이 잘못 알고있는 노후 준비- 아까워서 못쓰는 가난한 부자? 여유롭게 평생 쓰는 연금부자가 됩시다!

암 보험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18세~ 89세)

1.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2. 혹시 느낌이 불안하신 분 (병원 가기전에 가입)
3. 심적 안정을 원하시는 분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도 5만불 지급 (피부암 제외) 신체 검사 필요없이 바로 가입



그것이 알고 싶다

무료

메디케어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의료혜택입니다. 가입기간을 놓치시면 패널티를 내십니다. ”

2025년 **확!** 바뀐 플랜! **베네핏 제공!**

1. 현재 있으신 보험을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
2. 직장보험에서 퇴직하시는 분
3.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메디케어 플랜 이전
4. 각종 플랜 A, B, C, D 와 서플리먼트
5. 메디케어 있으신 분, 각종 베네핏 제공
6. 노인아파트 입주 상담도 해 드립니다.
7. 의심스러운 병원비 찾아드립니다.

국가대표 메디케어 마이크 리 703.679.2010

출장방문 가능 7535 Little River Tnpk. #204, Annandale, VA 22003 • 13850 Lee Hwy., Centreville, VA 20120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October 14,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 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종증
임종증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40 years of experience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www.Hanminursingschool.com

니켈 세계 1위, 인구 4위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드림'

“쿵! 쿵! 쿵!” 차체를 조립하는 마니풀레이터(manipulator·로봇 팔)의 윙윙대는 움직임이 빚어내는 굉음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현대로보틱스가 만든 410대의 로봇 팔이 100% 조립한 차체는 하나둘씩 줄서서 천천히 움직이며 다음 공정으로 향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도장(塗裝)과 검사·인도 등 공정에선 아까만 해도 좀처럼 보이지 않던 근로자들이 나타나 부지런히 작업을 이어갔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내 기업 2300곳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40km 가량 떨어진 도시 브카시의 델타마스공단 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HMMI)은 전기차 ‘아이오닉’ ‘코나EV’ 등을 생산하는 곳답게 높은 자동화 비율의 첨단공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준공한 이곳은 현재 생산직 약 1500명 등 직원 2000명가량 투입이다. 장혜림 HMMI 경영지원실장은 “인도네시아 내수뿐 아니라 아세안과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약 70개국으로 5개 차종을 수출 중”이라며 “연간 15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갖췄고 향후 최대 25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영역을 넓히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는 얘기도.

계획의 중심엔 아이오닉5를 필두로 한 전기차가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방문한 공장 준공식에서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거점”이라며 “전기차 생산거점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전기

차 배터리 제조와 공급망 구축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매장량이 약 5500만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42%에 달하는 세계 1위다.

이에 전기차 관련 한국기업들은 현대차 외에도 인도네시아 진출에 힘썼고, 그 결과 현지에서 한국 전기차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완성을 눈앞에 뒀다. 현지에서 니켈을 직접 확보하면서 원가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LX인터내셔널은 올해 1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의 AKP 광산 지분 60%를 1330억원에 인수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해외 니켈 광산 경영권을 획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마헤라섬의 웨다베이 공단에 5900억원을 투자해 니켈 제련 공장을 짓고 있다. 내년 준공하면 연간 니켈 중간재 5만2000t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HLI그린파워는 올해 7월 인도네시아 카라왕에 배터리셀 공장을 준공해 연간 10GWh(기가와트시) 규모 생산에 나섰다. 이로써 ‘니켈 채굴(LX인터내셔널)-니켈 제련과 중간재 생산(포스코홀딩스)-전기차 배터리 생산(LG에너지솔루션)-전기차 생산(현대차)’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됐다. 현대차 측은 “아직 니켈 채굴과 제련이 본격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원가 절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는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세계 최대 섬나라로서 물류거점의 이점 등을 갖춰 과거부터 한국 산업의 진출이 많았지만 봉제와 신발 등 경공업 분야 위주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며 “하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액
단위: 달러
자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억 8100만
2023년

11억 6600만
2020년

브카시의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HMMI). 직원 약 2000명이 근무하지만 로봇 팔 등을 통한 자동화 비율이 높다. 이창균 기자

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에 이어 최근 전기차와 바이오·제약 등 첨단 산업 진출로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국의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을 노리는 인도네시아 정부도 세제 혜택 제공 등으로 이를 지원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약 2억8000만 명)으로서 소비시장의 매력도 갖췄다. 이런 내수 파워를 앞세워 지난 10년간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21년의 2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5%가량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했다. 또 인도네시아 인구의 87%는 가족 형성 등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이라 출산율이 지난

해 기준 2.22명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국가 전반의 성장세와 구매력이 이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IMF 구매력평가 7위, 한국 넘어서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가 2050년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호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상무관은 “인도네시아는 양극화가 심해 중산층이 취약한 편이지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현재만 놓고 봐도 구매력이 강한 인구가 많다”며 “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이지만 구매력평가(PPP)에서는 세계 7위”라고 덧붙였다.

이창균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노승훈 Robinson S. Rown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오징어 게임’이 불질렀다 미국 작가 16년 만의 파업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넷플릭스의 ‘전, 란’이었다. ‘충무로’로 통칭하던 전통적인 영화제작사가 아닌 다국적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의 작품이 개막작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영화산업도 넷플릭스 등 OTT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막강한 자금동원력이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콘텐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외에도 전세계 영화나 TV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1997년 넷플릭스가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변화 중 부정적인 영향들이 최근에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 2023년 5월, 미국작가조합은 할리우드에서 16년 만에 전면적인 파업을 벌였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면서 작가들에 대한 급여, 일하는 방식, 고용 기간 등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을 우버 기사 취급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들의 슬로건이었다. 당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TV 작가 및 프로듀서의 주당 임금 중간값은 23%나 떨어졌다고 한다. 작가조합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영화제작사나 지상파 방송사와는 매우 다른 넷플릭스의 제작 관행이 주된 비난의 대상이었다. 우버 기사처럼 필요할 때만 불러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일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는 계약방식이 작가들의 근로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미국 콘텐츠 작가들의 처우가 열악해진 더 큰 원인은 따로 있었다. 콘텐츠 무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제적 경쟁 심화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미국 작가들이 파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TV 작가-PD 임금 10년새 23% 급락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콘텐츠의 약진이 왜 미국 작가들의 처우를 악화시켰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 관한 경제이론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단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들 중 하나다. 국제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두 나라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만드는 상품이 있을 것이고, 각각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잘 만드는 것을 생산해서 서로 수출하면 둘 다 이익을 본다는 내용이다. “비교우위가 있는 곳에 특화한다”는 결론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접해보셨으리라 믿는다.

리카도 이후 학자들은 이런 비교우위 자체가 왜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핵서와 올린은 나라들 사이에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다르다는 데 주목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은 포도나무를 기르기에 좋은 넓은 토지가 있고, 따라서 와인 생산에 비교우위가 생긴다.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초지가 아주 넓어서 목장이 많고,

싸고 맛있는 소고기를 많이 수출한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석탄 매장량이 많아서 증기기관을 돌릴 연료를 값싸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어떤 생산요소가 풍부한가에 따라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지고, 이것이 비교우위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핵서-올린 이론이다. 핵심은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썩 생산요소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예나 지금이나, 무엇인가를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비교우위는 영원할까?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만큼 땅덩이가 크다면 한동안은 다른 나라가 토지라는 생산요소에서 우위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이나 자본같은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무역이 계속 진행되면 비교우위가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요소가격이 조정된다는 것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다. 즉, 영원한 비교우위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가장 간단히 생각해보 수 있는 것은 생산요소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다. 국가 A가 있는데, 이웃 나라 B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에는 비교우위가 없다. 어떻게 될까? A국 사람들이 B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민을 가면서 B국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 요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의 출발점도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엄청난 임금 격차다. 하지만 생산요소가 국경 너머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역만으로도 생산요소 가격의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에 의한 ‘요소가격 균등화’ 현상이다. 이것을 밝혀낸 대표적 경제학자들 이름을 따서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라고도 한다.

두 나라가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하게 되면, 각자 수출하는 상품을 그 전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된다. A국에서 인건비가 싸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계속 수출을 한다면, 국내수요만 충족시킬 때보다는 훨씬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옷 생산에 비교우위가 없던 수입국 B에서는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외국에서 옷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옷에 대한 수



1 작년 파업에 돌입한 미국작가조합 회원들이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넷플릭스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 2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AFP-연합뉴스, [사진 넷플릭스]

요는 예전보다 줄어든다. 수요가 줄고 생산량이 줄면 고용도 같이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애초에 인건비가 낮아서 비교우위가 있던 나라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비싸서 비교우위가 없던 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임금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본에 대한 이자나 임대료 등 다른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임금 격차가 출발점

한국 등 아시아권 콘텐츠의 미국 수출이 매우 어렵던 시절, 미국의 방송작가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그 외 다른 처우도 훨씬 좋았다. TV 드라마를 예로 들어보면, NBC, ABC같은 주요 채널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는 보통 한 시즌에 스무 편 정도가 제작되었고, 이걸 1주일에 한 편씩 공개했다. 작가들은 제작사가 따로 마련해준 공동작업실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일을 했다. 드라마 한 시즌 참여하면 1년 가까이 돈 받으면서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얘기다. (‘쪽대본’과 밤샘작업, 열정페이 등으로 상징되던 한국의 드라마 제작 현실을 돌이켜 보자!) 그런데 넷플릭스 드라마는 보통 한 시즌에 여덟 편, 길어야 열 편쯤 되고, 이걸 다 찍은 다음 한꺼번에 공

개해 버린다. 고용기간이 몇 달 정도로 짧아지는 것이다. 프로젝트마다 단기계약을 맺다 보니 공동작업실도 안 주고 임시회의실 정도만 제공을 한다. 열악해진 작업환경. 미국 작가들은 넷플릭스를 비난한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처럼 상대적으로 값싼 콘텐츠, 즉 한국 작가들이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집필한 작품들이 OTT 플랫폼을 타고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요소가격 균등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콘텐츠 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때 높은 임금과 좋은 작업환경을 누리던 미국 작가들이 시장 개방과 함께 임금 하락 압력에 노출되는 것. 이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으려고 파업하는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작가들, 배우들, 스태프들의 임금이나 작업환경의 격차는 콘텐츠 교역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영화 ‘전, 란’은 10월 11일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 2 주연배우의 회당 출연료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는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작동 중이다.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MD 지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다양한 자산유형 활용... 리스크 줄이고 수익 개선

구조화 연금 선택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장의 수익 포텐셜을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들이 많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구조화' 연금이다. 구조화 연금은 투자성 지수연금(variable index annuity), '버퍼(buffered)' 연금, 지수형 투자성 연금(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 RIL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 연금은 기본적으로 부분적인 손실을 방어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방어해주는 만큼 수익에 상한선(cap)이 있다. 이제 익숙한 방식이다. 상한선이 있다고 해도 이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구조화 연금은 수익에 상한선이 있지만, 부분적 손실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성 사이 교환가치가 관측되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이상 떨어지면 물론 방어벽 밑으로 추가 하락한 만큼은 투자자가 손실을 수용해야 한다. 15%가 떨어지면 5% 손실을 감내하는 식이다.

10% 방어벽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20%~40% 사이에서 방어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손실에 대한 방어벽을 더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 상한선은 낮아진다. 손실 보호를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 포텐셜도 그에 맞춰 양보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40% 방어벽을 선택하면 수익 상한선이 10% 정도다. 이런 손실 방어 수준과 상한선은 꾸준히 바뀐다. 계속 변화하는 금리환경이나 시장 변동성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모든 구조화 연금이 동일한 수준의 손실 방어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100% 방어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20% 손실 방어벽이 최대치인 경우도 있다.

수익 포텐셜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할 때 상한선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 자체로는 맞지

만 다른 조건들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상한선이 너무 높으면 기본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수익 상한선을 볼 때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상한선도 볼 필요가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상한선을 제공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방어벽 수준에 따른 수익 상한선과 그 역사적 경험치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옵션

구조화 연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수와 이들 지수를 통해 수익을 결정해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S&P500 등 지수가 있고, 원하는 방어벽을 선택하는 것이다.

옵션에 따라 1년, 3년, 5~6년 등 연금에 따라 방어벽이 적용되는 만기가 다르다. 어쨌든 해당 지수가 선택한 기간 내 선택한 방어벽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손실은 없다. 시작점보다 만기일에 해당 지수가 올라가 있으면 당면

히 정해진 수익 상한선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시장의 방향성이 현저하지 않을 경우 혹은 하락할 경우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투자방법과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그중 하나는 선택한 시장지수가 정해진 기간 내 적어도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을 경우 수익률이 나오는 방식이다. 연금마다 이 방식을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공하는 옵션이다.

이외 선택한 해당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도 정한 방어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 상한선만큼을 전부 주는 방식도 있다. 비슷하지만 선택한 방어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손실을 똑같은 수준의 수익으로 바꿔 주는 방식도 있다. 예를 10% 방어벽을 선택했는데 만기일에 지수가 9% 하락한 상태라면 이 9%를 수익으로 전환시켜주는 방식이다.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거나 조정 하락이 올 경우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런 방법들은 구조화 연금이 모두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다양한 수익창출 옵션이 있는 것이 그만큼 능동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 경험치를 생각해 보고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연성

일반적인 연금의 단점 중 가장 큰 것이 제한적 유동성이다. 하지만 시장의 대부분 구조화 연금은 유동성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해지하고 돈을 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일정 기간 내 해지하면 해지할 당시 금리환경에 따라 인출액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리가 가입 때보다 올라가 있으면 보통 금액이 감소되고, 가입 때보다 금리가 내려가

면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리스크'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리스크로 본다면 가능한 이런 조항이 없는 연금 선택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하나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투자옵션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지 여부다. 능동적인 자산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다. 선택한 옵션의 만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그동안 번 수익을 챙기고 다른 투자옵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가장 좋다. 이외 인출시 세무 효율성, 상속 방식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론

구조화 연금의 최근 인기에는 역사적 경험치도 한몫한다. 1980년부터 2023년 말까지 경험치를 보면 5년 만기 투자옵션을 선택할 경우 방어벽 아래로 손실이 난 경우는 10% 미만이다.

이는 손실 방어벽이 10%일 경우다. 손실 방어벽을 20% 수준으로 늘리면 5년 후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손실 방어벽을 20%로 한 1년짜리 옵션의 경우도 같은 기간 중 20% 이상 지수가 떨어져 손실이 났던 횟수가 전체의 4.5%로 미미했다.

완전한 손실 봉쇄는 아니지만 20% 손실 방어벽으로도 대부분의 하락장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한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적인 투자와 구조화 연금을 함께 쓸 때 리스크/리워드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주식과 채권 구조화 연금, 지수형 연금 등 다양한 자산 유형을 사용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는 줄이고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해 보자. 나쁘지 않은 자산운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퀀트 이머티얼 에셋 대표

▶손실 방어와 수익 포텐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10% 손실을 방어해주는 옵션을 선택할 경우 S&P500 기준으로 현재 15~19% 정도로 상한선이 형성돼 있다. 러셀 2000을 사용할 경우는 23~26%가 수익 상한선이다. 나스닥도 18~25% 사이에서 상한선이 형성돼 있다.

1년 사이 어느 기간 중 10% 이상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들어간 만기일 전까지만 10% 이상 빠져있지 않으면 손실은 없다. 대신 시장이 올라가면 상한선이 있다 해도 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

▶1면 '인도네시아 드림'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은 물론 프랑스·영국보다 국가 전반의 구매력이 강하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첨단산업의 생산·물류거점 확보뿐 아니라 소비시장을 목표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다. 대응계약은 현지 자회사인 대응바이오토크스인도네시아(DBI)를 통

해 신도시인 치카랑의 자바베카산업단지에 연간 150억 줄기세포 생산이 가능한 처리시설을 세우고 지난 달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유지민 대응계약 세포공정센터장은 "인도네시아는 지속적 인구 증가에 비례해 고령화로 인한 난치성 질환도 증가세"라며 "현지 제약 시장 규모가 2022년 13조원에서 2026년 18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만큼 다양

한 줄기세포 치료제 R&D로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첨단산업의 '인도네시아 드림'이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우려점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맹국도 적대국도 두지 않는 이른바 'Free and Active'의 실리 추구 외교정책을 고수하는데, 이런 유연함이 한국엔 불안요소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경쟁상대인

중국에도 파격적인 조건의 첨단산업 진출 기회를 주고 있어서다. 중국이 BYD 같은 자국 전기차 기업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약속하자, 인도네시아가 내년까지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광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인도네시아는 중립외교를 표방하지만 지난해 투자받은 해외 자본의 30%가 중국 자본이었

을 만큼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곽 센터장은 "중국은 또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밸류체인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약 2300개 진출 기업들이 구심점 없이 각개 전투를 하는 형국"이라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 접근이나 기업 지원 강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균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현명한 401(k) 관리

매년 저축액 1%씩 증액 기여 검토
이전 직장 401(k) 현재 계좌로 이전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반드시 저축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저축을 잘한다고 해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능력은 별개의 기술이며, 모두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401(k) 계좌 관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계좌를 설정한 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고 자산이 알아서 불어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돈을 모으는 능력만을 활용할 뿐, 불리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심과 조정이 필요하다. 매년 단 60분만 투자한다면 은퇴 준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음은 401(k)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다. 카테고리마다 10분씩 투자해 보자.

▶10분: 은퇴 목표 점검

젊어서 은퇴 저축을 시작할 때와 은퇴가 코앞

으로 다가왔을 때 필요한 것들이 아주 다르다. 매년 401(k) 계좌를 점검하며 언제 은퇴하고 싶은지, 그때까지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의 은퇴 계산기나 나이별 저축 기준을 활용해 보자. 또한,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가며 목표를 점검하자.

▶10분: 기여율(Contribution Rate) 검토

401(k) 저축액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둘째, 매년 저축액을 1%씩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Secure Act 2.0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401(k) 플랜에는 자동 증액(auto-escalation) 기능이 법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의 기여율을 자동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준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401(k) 플랜에 이 기능이 없다면, 매년 스스로 점검하고 1%씩 증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증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퇴 자금이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봉 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기여율을 더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보자.

▶5분: 연락처 정보와 수혜자 업데이트

결혼, 이혼, 이사 등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401(k) 제공자에게 새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수혜자 및 새로운 주소 등의 업데이트는 매우 중요하다. 수혜자 지정을 잊거나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0분: 자산 배분 검토 및 리밸런싱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리밸런싱은 필요하다. 일부 플랜은 자동 리밸런싱 기능을 제공하지만, 어떤 곳에 투자했는지 그해 분기별, 년 수익은 어땠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가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면 공격적인 투자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오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시장 상황과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 변화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10분: 추가 기여(Catch-up Contribution) 고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이들이 저축을 가속하고 싶어 한다. 특히 자녀 양육비나 주택담보대출 등 큰 지출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이전에 다른 재정 목표를 위해 줄였던 저축을 다시 늘

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세 이상이라면 추가 기여(Catch-up Contribution)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퇴 계좌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Catch-up Contribution 한도는 8000달러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은퇴 저축을 크게 늘릴 기회다. 또한,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전통적 401(k)와 Roth 401(k) 사이에서 적절히 분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15분: 예전 401(k) 정리 계획 세우기

만약 이전 직장의 401(k)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계좌로 롤오버하거나 IRA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401(k) 안에 투자되는 옵션들의 수수료와 성과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 롤오버 시 세금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적은 시간 투자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은퇴를 위한 저축 계획은 한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하는 것처럼 계속 바꾸고 조절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개념을 넘어, 은퇴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 맞춰 재정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경제 상식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허리케인과 주식

자연재해로 이득 및 손해보는 종목 발생
허리케인 지역 원유 생산업체 유가 영향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 수요일 저녁에서 목요일 새벽쯤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리케인 '헬렌'에 이어 플로리다는 연이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날씨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가을이 시작하는 9월 내내 열대야로 무더운 초가을을 맞이했다. 한국 기상청은 9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죽 더웠으면 모기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득을 보는 종목과 손해 보는 종목들이 있다.

먼저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악영향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보험사들일 것이다. 투자전문지 배런지는 증권사 KBW에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플로리다에 보험 가입자가 많은 유니버설 인슈어런스사와 아메리칸 코스탈

인슈어런스사는 월요일 주가가 각각 20%, 15% 하락했다.

배런지는 또 발전기 제조업체 제너랙의 주가가 월요일 8.5% 상승한 것으로 보도하며 자연재해로 인해 발전기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보여주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휴디포나 로우스 같은 기업들도 있다.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했을 때의 강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 정도를 예상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이기 는 하나 왜 특정 주식이 하락하고 또 다른 주식은 오르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주가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번 허

리케인으로 관심받는 종목은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에너지 업체들이다.

허리케인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유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겪는 일이다.

보험사들이 철수하는 이유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산불도 어김없이 매년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매년 겪는 자연재해에 조금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때마다.

광고 및 구독 문의 703-281-9660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트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p>SOLD</p> <p>Hanover</p> <p>\$580,000 타운홈, 방3,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Laurel</p> <p>\$589,000 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UNDER CONTRACT</p> <p>Odenton</p> <p>\$465,000 타운홈, 방3, 화3</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575,000 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Catonsville</p> <p>\$395,000 싱글홈, 방4,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15,000 타운홈, 방3, 화3</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UNDER CONTRACT</p> <p>Jessup</p> <p>\$389,000 타운홈, 방2, 화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저출산·노인돌봄 해법 찾으려면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낸시 폴브레 지음
윤자명 옮김
에디토리얼



독일 기센의 난민 관련 시설 유치원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미국 하버드대의 클로디아 골딘 교수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성교에 관한 이해를 증진한 공로”로 받은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골딘 교수는 경제사와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경제적 불평등, 여성 노동력, 젠더 간 임금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력, 젠더 간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 기술 변화, 교육, 이민 등 연구 분야가 광범위하지만 이를 하나로 꿰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

골딘 교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 노동력의 저평가와 임금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었다면, 지은이는 임금을 받지 않는 여성의 ‘비시장 노동’에 주목한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의 명예교수인 지은이는 가사·출산·보육·가족보살핌 등을 ‘돌봄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이 대학 정치경제학연구소(PERI)의 ‘젠더와 돌봄노동 프로그램’ 책임자로 관련 연구를 주도해온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다. ‘돌봄노동’은 원래 의료·교육 등 폭넓은 사회적 서비스를 가리키지만, 지은이는 출산·보육·교육과 노인돌봄 등 비시장 노동에 초점을 맞춘다.

지은이는 지금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선진국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으로, 돌봄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몰아간 가부장제

를 지목한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은 가족 보살핌과 아이 양육 등 돌봄노동을 전담했다. 기술혁신과 임금노동을 확대하면서 이런 불평등 체계가 무너졌지만, 그 빈 공간에서 더 큰 문제가 불거졌다. 기술혁신과 임금노동 기회 확대 속에서 여성은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의 이중고를 강요받았다. 이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분배와 복지국가의 출현과 확대에 이어졌다.

선진국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복지지출의 확대다.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 축적이 성공한 뒤 공적지출 확대에 이어진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지은이는 복지확대가 첫째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둘째 자본주의의 시장실패를 해결하며, 셋째 가족과 경제의 관계가 변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복지는 부와 소득 편중의 심화와 노동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자본

주의와 연금·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시장의 결함을 보충하는 게 목표였다. 복지 등 공공지출의 확대는 기업의 인적역량 창출비용 일부를 공공 정책에서 부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은이는 복지국가 정책의 확대가 오히려 복지국가의 진전을 가로막는 벽이 됐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공공지출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비록 삭감되지는 않았더라도 더 이상 확대될 수는 없었다. 자본 이동성이 증가하고 역의 탈세가 쉬워지는 등 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지면서 복지재원의 확대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과세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가부장적 편향이 작용하면서 국가는 아이 양육비용을 양육자에게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다. 출산

과 양육은 사회나 국가가 아닌 개인 부담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양육자 이외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되자 출산율은 기존 인구를 대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한다. 결국 저출산과 노인 돌봄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비용의 분배를 둘러싼 집단 갈등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복지만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은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사회적 약자끼리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부장제 체제의 부상과 쇠락, 이후의 새로운 질서”라는 부제가 전체 주제를 요약한다. 원제 The Rise and Decline of Patriarchal Systems.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맑은 강과 호수 위한 다이어트·운동 처방



녹조의 변성
강찬수 지음
지오북

여름이면 전국 곳곳의 호수와 강은 짙은 녹색으로 변한다. 심한 곳은 악취가 진동하고 죽은 물고기가 동동 떠난다. 녹조(綠潮)가 장악하기 때문이다. 녹조는 강이나 호수, 바다에 조류(algae)가 자라서 짙은 녹색을 띠는 현상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우리 사회는 녹조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10년 넘게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간지 환경전문기자가 쓴 이 책에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녹조라는 환경난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려는 저자의 고민이 담겨 있다.

30년 동안 전국의 강과 호수를 다니면서 녹조 현상을 취재한 저자는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남조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남세균이 녹조와 함께 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독소는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저자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 남세균 중에는 독소를 만드는 종류가 있는데 이들이 짙은 녹조를 형성할 경우 주변 공기에도 독소가 검출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자는 녹조 문제를 남세균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다. 녹조가 번성하는데에는 인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속에는 질소나 인 같이 조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이 들어 있다.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될수록 조류에게 영양제를 주는 셈이다. 강의 흐름도 중요하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물을 막으면 그만큼 녹조가 발생하기 쉽다.

저자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영양화를 막고 남세균이 녹조로 자랄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영양화를 막는 것을 다이어트에,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을 운동에 비유하면서 강과 호수가 건강해지려면 이들이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원래대로 강이 흐르도록 하면 체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뭄에 대비해 물을 확보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깨끗한 물이 가치가 있는 수자원이지만 오염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폐수에 불과하다고. **천권필 기자**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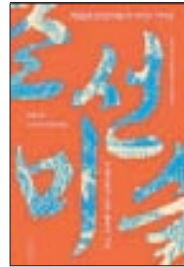
사막아, 사슴아 (최운 지음, 문학과지성사)=소설가 최운의 산문집. 일부러 다들지 않는 이야기들이라고 한다. 책 제목의 비밀은 ‘속도와 잠음’이란 글에 실마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단어는 영원과 완벽한 고요. 하지만 우주여행을 떠나지 않는 이상 차선책으로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여행지가 사막이란 것. 그곳에선 영원하고 고요가 결합된다.



김종철 시선집(김종철 지음, 강봉자 엮음, 문학수첩)=시인 김종철(1947~ 2014)의 2016년 시선집(여덟 권 분량)을 아내인 강봉자 문학수첩 대표가 한 권으로 단출하게 엮었다. 아내는 쓴다. 시인 생애의 67분의 40을 같이 살았다. 그가 쓴 시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40년 전에 쓴 시들이 마음에 더욱 와 닿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옥타비아 버틀러의 말(옥타비아 버틀러 지음, 이수현 옮김, 마음산책)=남북전쟁 이전으로 시간 여행을 가서 노예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흑인 여성의 이야기 『킨』을 비롯해 새로운 지평의 SF와 판타지를 펼쳐온 작가의 인터뷰집. 그는 “모든 인간의 차이에 대해 쓰고 독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것”을 작가의 의무로 꼽는다.



재일조선미술사 1945-1962(백지음, 노유니아·정성희 옮김, 연립서가)=1962년 출간된 『재일조선미술화가집』을 비롯해 해방 직후부터 일본에서 스스로를 ‘조선인’으로 불렀던 미술가들과 그 활동을 조명했다. 이들은 당시 일본에서 벌어진 민족 교육 수호 운동 등은 물론 조국에서 벌어진 한국전쟁과 제주 4·3 사건 등도 작품에 담았다.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 화3.5/ 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2.55/ 차고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히터, Bathrooms)	**방4/ 화3.5/ 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시를 품은 한국 소설, 특유의 공감 문화 세계가 알게 되다

노벨상 위원회는 올해 문학상 수상자를 잘 골랐다. 그들은 현재의 우리 문명이 병들었다고 진단하고 그 환부를 보여준 예술가를 정확하게 골랐다. 그들에게 상을 주고 싶다.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문학잡지 AZALEA(진달래)를 창간하고 편집장 노릇을 거의 20년간 하면서,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왜 한강인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세계의 젊은 세대는 모두 K-컬처에 흠뻑 빠졌는데, 그래서 K-문학이 이 흐름에 합류한 것인가? 어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관측은 한강의 작품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또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단견이다.

K-컬처의 영향? 세계 흐름 헛짚은 단견
한강의 수상 소식을 전하는 매체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는 한강 작품의 주제는 폭력이다. 서구세계에 한강의 작품 세계를 알린 첫 번째 작품이 『채식주의자』다. 가부장적 한국 사회, 혹은 남성 주도로 이끌어온 근대 세계 일반의 폭력성을 고발한 이 작품은, 처음 출판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많은 독자들은 한국 사회의 폭력성을 정면으로 다룬 이 작품을 불편해했다. 부커상을 수상하고 나서야 이 작품은 한국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혜는 어느 날 고깃덩어리 꿈을 꾸 후 채식을 선언하는데, 영혜의 남편이나 가족 모두 영혜의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영혜에게 고기를 들고 다가와 억지로 먹이려는 아버지의 행위는 끔찍하다. 이보다 더한 장면도 있다. 자신의 아이를 다치게 한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그 개가 죽을 때까지 온 동네를 질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다. 개를 두들겨 패서 먹으면 맛있다는 속설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 에피소드는 남성들의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영어 번역본에는 이 장면이 빠져있다. 영어권 독자들에게 줄 충격을 번역자가 완화시킨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피소드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폭력성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혐오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귀국해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채식주의자』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채식주의자』는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작 부분은 주인공 영혜의 남편 목소리로 서술된다. 소설의 첫 문장을 보라.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과분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남편은 영혜를 아내로 선

세계 유일 시집 베스트셀러 코너
한국 소설 시처럼 직접 공감 요청
이 땅서 억압받는 이들 눈물·비명
광주·제주 사람들도 함께 받은 것

택한 이유도 그녀의 “무난한 성격”과 “편안함”을 든다. 스스로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영혜와 결혼한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의 묘사를 문제적이라고 지적하는 한국인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시작 부분의 묘사를 남학생으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읽게 하고는 여학생에게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여러 번이다. “아뇨”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여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은 충격적이었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영어로 번역된 판본을 읽고 물어보면 대답은 명료하다. 영어로 읽은 외국인 학생들은 한결같이, 시작 부분 단 한 문단의 서술만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뉘플 인간이라는 것을 파악한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 학생이 영어판으로 읽고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글판으로 읽은 한국인 학생 대부분에게 그 남편이라는 사내의 어떤 면이 문제인지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남편의 말과 행동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독자에게 아내인 영혜의 채식 선언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남편이 어떻게 느낄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남편이 불편하다 혹은 불쌍하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이며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고 평균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가를 그려내는 시작 부분의 한 문단이 작가의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모두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이성복 시인의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노벨상 위원회의 공식 수상 발표문은 한강의 수상 이유를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다. 한강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썼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여한다는 이 문장은 역사적 트라우마, 인간의 취약성, 시적 산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키워드로 제시한다. 한국 사회가 겪은 사회·역사적 변동을 거시적 관점에서 다룬 작품은 황석영 등 선배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상당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사적 변동의 폭력에 의해 부서진 개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진 작품은 어쩌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강의 작품에서 “강렬한 시적 산문”이 명시된 것은 한국 문학 이해의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2016년 5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맨부커 인터내셔널 소설상 시상식에서 한강이 자신의 책 『채식주의자』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아래 사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웨덴 한림원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의 책들이 전시된 모습. [AP·로이터·연합]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화적 전통의 힘은 강력했다. 한국어에 없던 과거형 문장이라든가 대명사를 사용하려고 노력도 했다. 그러나 한국어 소설은 여전히 서구 소설과 다르다. 한강의 소설을 두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소설에는 시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한강의 소설이 심하게 실험적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서구 독자들에게는 혁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가부장제에 고통받는 여성 공동 수상
한국은 시의 공화국이다. 서점에 가보면 시집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다. 전 세계의 대도시에는 큰 서점에 가보라. 프랑스나 영국, 미국의 대도시에는 큰 서점에 가보라 시집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치한 곳은 없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시집이 올라가는 일은 없다. 이 사정은 출판대국이라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시집이라는 출판물은 세계적으로 고사 직전의 유물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문학 잡지에 시를 게재하고 고료를 받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큰 출판사들이 자신들의 시집 시리즈를 수십 년 운영하면서 수백 권의 시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그 시집들의 대부분이 재판 삼판을 거듭한다.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 대부분은 모른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천만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만난 외국 문학 교수들도 우리나라의 시집 출판에 대해 듣고서는 깜짝 놀란다.

시가 이렇게 읽히는 한국에서 소설이 시와 닮아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시는 본질적으로 화자의 음성에서 기반한다. 즉, 시에서는 살아있는 화자의 목소리가 독자에게 일인칭이나 이인칭으로 말을 건넨다. 한국인들의 서사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지향하며 중요한 장면에서는 곧잘 과거형 문장이 현재형으로 바뀐다. 혹은 마치 시가 그런 것처럼 직접적인 목소리로 독자에게 공감을 요청한다. 한국 문화가 공감에 기반하는 세계상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강의 작품을 통해 세계의 독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수상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강 혼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지난 백 년간의 한국문학 전통 위에 한강의 작품이 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선배 문인들의 지문이 남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눈물과 비명이 묻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벨문학상은 광주와 제주 사람들도 함께 받은 것이며, 무엇보다도 한국의 강고한 가부장제 문화에서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는 한국의 여성들이 공동 수상자이다.

이영준 문학평론가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p>급매</p> <p>\$69만 우드브리지 니부 렌딩 싱글홈 방4+ 차3</p> <p>\$56만 알링턴 콘도 방2+2방베리 고층층은 베드룸과 인비 타운하우스 콘도</p>	<p>임대</p> <p>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p> <p>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p> <p>락빌 \$3,500 방3+/화3 차고 1</p>	<p>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p> <p>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p> <p>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p> <p>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p> <p>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p>
--	---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책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유리 같고 대리석 같은 비누 조각상, 시간의 향기 은은

“예쁘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 행인들이 작게 탄성을 지르며 매장 쇼윈도 앞에 멈춰 선다. 크고 작은 윈도를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이내 폰을 꺼내 가죽 제품과 스카프가 반투명한 색색의 조각상들과 어우러진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서울 본점인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크 앞을 지날 때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미술가와 협업해 윈도 디스플레이를 꾸며왔다. 올 가을에는 ‘비누 작가’로 유명한 런던 기반 한국 조각가 신미경(57)과 처음으로 협업했다. 일부는 유리 같고 일부는 대리석 같은 조각상들은 사실 모두 비누로 만든 것이다.

이번 윈도 디스플레이의 테마는 ‘클래식: 분더카머’다. 대항해시대인 16~17세기 유럽에서는 엘리트 계층이 세계 각지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모아 개인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분더카머(독일어로 ‘경이로움의 방’)'라고 했고 훗날 박물관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영어로는 ‘캐비닛 오브 큐리오시티스(호기심의 방)’이라 불린다.

작가 신미경은 파리 포부르에 위치한 에르메스 본사 내부에 있는 ‘에밀 에르메스 박물관’에 초대되어 둘러보면서 ‘이것이야말로 100% 분더카머구나’라고 생각하며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에르메스 역대 회장 중 에밀-모리스 에르메스(1871~1951)가 자신의 개인 컬렉션을 모아 놓고 서재로 쓰던 곳이다.

“정말 온갖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서 중앙일보와 만난 작가는 말했다. “말에 대한 것들이 특히 많더군요. (에르메스는 본래 승마 장비 가죽 제품에 특화했다.) 평소에는 에르메스 직원에게만 개방되어 영감을 주는 곳이라고 해요. 에르메스의 이번 시즌 주제가 ‘포부르’여서 오래된 것에서 뭔가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에밀 에르메스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처럼 ‘유물’이 된 오브제들은



서울 강남구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크의 쇼윈도 모습. 신미경 작가와 협업한 올해 가을 윈도 디스플레이 테마는 ‘클래식: 분더카머’다. 김상태 촬영. 사진 에르메스 코리아

그리스 조각, 불상·도자기 등 재현 본사 박물관 둘러보면서 영감 얻어 자연과 문명의 시간 흐름 압축 비누가 아닌 도자 연작도 선보여

언제나 작가의 관심사였다. 작가는 고대 그리스 조각, 동아시아 불상·도자기 등등 동서양의 유물을 비누로 재현하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그럼으로써 유물의 맥락을 변형하고 유물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WWNN 갤러리에서 중앙SUNDAY와 만난 신미경 작가. 최영재 기자

작가는 기자와의 몇 차례 인터뷰에서 “유물이 두 가지의 시간의 흐름을 거친다”고 설명해 왔다.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 신상이 알록달록 채색되어 (원래 백색이 아니었다) 종교적 용도로 쓰였을 때나 조선 백자 달항아리가 기름 담은 기물로 쓰였을 때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 이때 인간 손길에 의한 마모나 자연에 의한 풍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유물’이나 ‘예술’이 되어 박물관에 안치된 후 시간의 흐름이 있다. 이때 신상과 달항아리는 원래의 기능과 맥락을 잃고 대신 ‘백색 미학의 아이콘’ 등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으며

아무나 만질 수 없는, 박물관 학예사만이 잠깐을 끼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신미경은 이렇게 두 층위의 시간과 의미를 품은 유물들을 비누로 재현한다. 일상의 물건이었던 것이 감히 만질 수 없는 유물이 된 것을 다시 일상의 오브제인 비누로 재현한 것이다. 매우 정교해서 언뜻 실제 유물과 구분되지 않지만 비누 향기를 은은하게 뿜어냄으로써 관람객들을 혼란과 호기심에 빠뜨린다.

때로는 그러한 비누 조각상을 관람객의 손길로 닿게 하는데, 지금 노원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화장실 세면대에는 설치되어 관람객들이 비누로 쓸 수 있게 한 천사 조각상들이 바로 그 예다. 이 ‘화장실 프로젝트’는 지난 6월 북서울미술관에서 시작한 신미경 개인전 ‘투명하고 향기나는 천사의 날개 빛깔처럼’(내년 5월 5일까지)의 일환이다. 이렇게 ‘풍화’된 조각상들이 다시 ‘예술’로서 미술관에 안치된다. “유물이 거치는 두 가지 시간의 흐름”을 비누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아주 빠르게 응축해 내는 것이다.

이번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크 윈도

디스플레이 프로젝트(11월 14일까지)를 위해서 작가는 140여 점의 비누 작품으로 19개의 윈도를 채웠다. 그는 말했다. “그간 늘 전시해오던 미술관과 간극이 큰 환경이다 보니 상당한 도전이었는데 그게 재미있기도 했어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또 매장 윈도로서 성공적이어야 하니 쉽지 않았습니. 다행히 ‘분더카머’라는 테마로 정리가 되어 대중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더카머는 (엄밀하게 제도화된 박물관과 달리) 여러 수준의 유물, 즉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부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 장식품과 경계가 애매한 유물까지 섞여 있거든요. 그러한 분더카머 개념이 확장되어 제 작품과 에르메스 제품이 같이 섞여서 보여지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에르메스 직원들은 에르메스 제품이 ‘작품’이고 제 작품은 (장식용)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요.(웃음)”

신미경은 아마도 올해 가장 분주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일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제2회 하인두예술상 수상 기념으로 서울 광화문 아트조스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지난 2월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그룹전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주목 받는 신생 공간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갤러리 WWNN에서 개인전 ‘봉괴의 연대기’를 시작했다.

이달 27일까지 열리는 전시에는 약 30점의 구작과 근작이 전시되는데, 근작 중에는 비누가 아닌 도자 연작 ‘메갈리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작은 화산 폭발과 같은 대자연에서의 생성 과정 및 그와 관련한 시간의 흔적을 도자로 재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작가는 “유물의 시간성을 재현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풍화작용의 예술적 효과, 나아가 자연에 의한 모든 예술적 효과에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신미경의 작품은 자연과 문명의 시간 흐름을 압축한다는 일관성을 지니면서 계속 확장하고 있다.

문소영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할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사업체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역,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사업체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서울 미극 한방병원
 Credit Card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구영회가 누구야? ... NFL '신 스틸러' 떴다

애틀랜타 '한국계 키커' 스타 등극
지난달 뉴올리언스전 역전승 화제
종료 2초전 53m 장거리 필드골 성공
몸값 327억원 ... 쿼터백 못잖은 인기

“구영회가 대체 누구야?”

미국프로풋볼(NFL)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9일(한국시간) 홈페이지의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코너에서 애틀랜타 팰컨스의 한국계 키커 구영회(30)를 소개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

내셔널콘퍼런스(NFC) 남부지구 1위 애틀랜타(3승 2패)는 14일(한국시간) 4위 캐롤라이나(1승 4패)와 2024 시즌 NFL 정규리그 6주 차 원정 경기를 벌인다. NFL에선 보통 '중원사령관'인 쿼터백이나 패스를 받거나 운반해서 득점을 올리는 와이드리시버, 러닝백 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잠깐 출전해 3점짜리 필드골이나 1점짜리 보너스 샷을 시도하고 벤치로 물러나는 조연급 포지션인 키커가 주목을 받는 건 이례적이다.

그런데 구영회는 여느 키커와는 다르다. 올 시즌 그는 주 무기인 오른발 킥으로 패배 직전의 애틀랜타를 여러 차례 구해내는 '신 스틸러'란 한 장면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캐롤라이나는 “구영회는 데뷔 7년 차 베테랑인데도 '신상 명품'과 같은 선수다. 올 시즌 14차례 필드골 시도

중 12차례를 성공했는데, 그중 6번은 승부를 뒤집는 역전 킥이었다. 또 50야드 이상 장거리 필드골을 6차례나 시도해 5번이나 성공할 만큼 절정의 킥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뉴올리언스 세인츠와의 홈 경기에서 구영회는 해결사의 면모를 뽐냈다. 경기 종료 13초를 남겨둔 가운데 애틀랜타는 23-24로 뒤지고 있었다. 남은 공격 기회는 단 한 차례. 상대 골대까지의 거리는 55야드여서 패스나 러닝으로는 득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한 구영회는 종료 2초 전 58야드(53m) 초장거리 필드골을 터뜨리며 애틀랜타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 골로 그는 종전 자신의 최장거리 필드골 기록인 54야드(49m)를 넘어섰다.

구영회의 NFL 도전 스토리 역시 한편의 역전 드라마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구영회는 12세 때인 2006년 미국 뉴저지로 이민을 갔다. 그는 한국에선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미국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미식축구로 진로를 틀었다. 조지아 서던대학교 졸업 직후인 2017년 구영회는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에 입단하면서 한국 국적으로는 최초의 NFL 선수



뉴올리언스전에서 58야드 필드골을 성공하는 애틀랜타의 한국계 키커 구영회(가운데). 올 시즌 팀의 해결사로 떠올랐다. [AP=연합뉴스]

구영회는

- 생년월일: 1994년 8월 3일 (서울 출생, 미국 국적)
- 체격: 키 1m75cm, 몸무게 84kg
- 소속: 애틀랜타 팰컨스 •포지션: 키커
- 주요 경력: 한국 국적 최초의 NFL 선수 (2017년 데뷔 당시), 2020시즌 144득점(애틀랜타 구단 신기록), 프로볼(올스타전) 선발
- 최장거리 킥 성공: 58야드(53m)
- 연봉: 2022년 5년간 총액 2425만 달러 (약 327억원) 계약
- 별명: 아이스맨, 킥장인

드 골 성공률 94.9%를 기록하면서 정상급 키커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생애 첫 프로볼(올스타전)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표정 변화 없이 기계처럼 척척 득점을 올리는 그를 두고 미국 팬들은 '아이스맨'이란 별명을 붙여줬다. 2021시즌에도 그는 필드골 성공률 93.1%의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구영회는 2022년 3월 애틀랜타와 5년 총 2425만 달러(약 327억원)의 계약에 사인했다. 구영회는 “처음엔 영어도, 풋볼도 몰랐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잔치국수·삼겹살 등 한식을 즐기는 구영회는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렇듯 한글 이름의 영문 표기인 'YOUNGHOE KOO'를 그대로 쓴다.

피주영 기자



가 됐다. 그러나 4경기에 출전해 6번의 필드골 시도 중 3차례 성공에 그치며 한 달 만에 팀에 방출됐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2년간 이를 악물고 기량을 갈고닦았다. 결국 2019년 애틀랜타에 입단하며 NFL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듬해인 2020시즌 구영회는 필

'흠신' 나달, 11월 데이비스컵 끝으로 은퇴 선언

'흠신' 라파엘 나달(38·스페인)이 다음 달 열리는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를 끝으로 은퇴한다.

나달은 1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프로 테니스에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그가 정든 코트를 떠나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부상이다. 나달은 이미 고관절 부상 등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던 지난해 5월 프랑스오픈 불참을

밝히면서 올해가 현역으로 코트를 누비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 예고했다.

나달은 “지난 2년은 정말 힘든 시기였다.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가대항전 2024 데이비스컵 파이널스가

나달의 은퇴 무대다.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19일 8강전을 치른다.

나달은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서 내 나라 스페인을 대표해 뛰는 게 내 마지막 무대여서 흥분된다. 프로 선수로 활동하며 처음으로 대단한 기쁨을 누린 게 2004년 데이비스컵에서 우승했을 때이기 때문”이라면서 “완벽한 원을 그린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1년 프로에 입문한 나달은 24년간 코트를 누비며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2차례나 우승했다. 로저 페더

러(스위스·은퇴),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함께 남자 테니스 '빅3'로 불렸다. 이들은 최근까지 10년 넘게 남자 테니스를 호령했다. 특히 클레이(흠) 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에서 14회나 우승해 '클레이코트의 제왕'으로 불렸다. 한국내 팬들에겐 '흠신'이란 별명을 얻었다. 20회 우승한 페데리가 셋 중 가장 이른 2022년 9월 은퇴한 가운데 나달도 은퇴를 예약하면서 24회 우승한 조코비치가 한동안 '메이저 최다 우승자'로 남게 됐다.

피주영 기자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한방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안내차 Ms. Han (703) 939-5223 (가용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절로써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Little River Tnpk, Suite 330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텔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컴퓨터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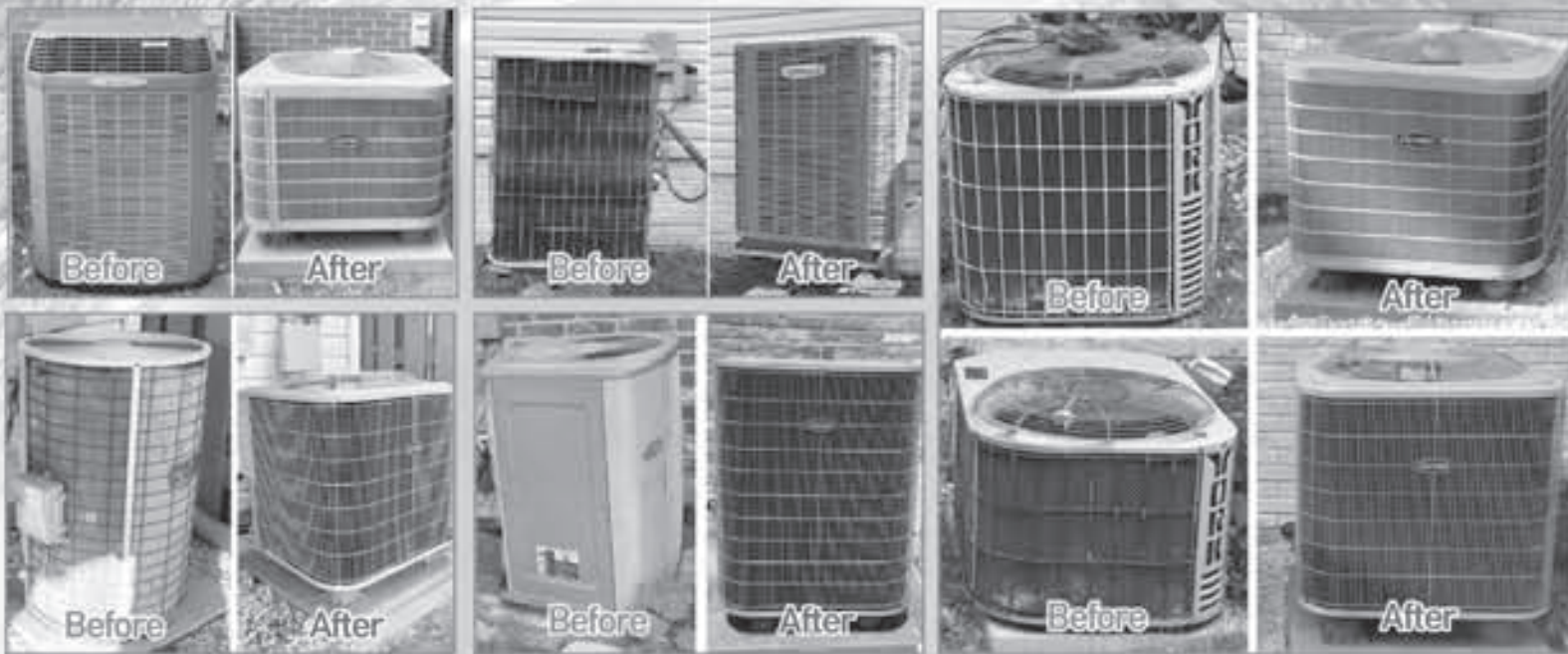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관리 및 인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공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밀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모/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 타운 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 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 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 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 홈,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룸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스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도개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 회사 세일즈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퍼점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광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0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자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명, 패킹/포장팀 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학생및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중앙일보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다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92차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드넛센터빌베이커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캠,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301-537-3800

No.1콜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널빌.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훔벌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분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or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71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부/\$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드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자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 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합니다. 월 \$7,495. 문의 703-244-3453

▶▶ 노바조지메이슨 5분, 아웃하이 15분 도보거리/리모델링/새집같은 단독주택/방1, 지하워아웃/화장, 욕실, 거실, 부엌, 단신 남자환영/10/27일 입주가능
703-425-9075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 1. 방장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한강리뷰 방1/화1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트데근처
571-970-8048

▶▶ 애난데일 아파트/한강리뷰/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 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 보내주세요.
571-345-8879

▶▶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 1.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 첼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킴친,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환영/문자바람
703-678-7833

▶▶ 애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사업용 매매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 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 4 화 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평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

▶▶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 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 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벽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동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동용/산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터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동용/산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롤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화팅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밥-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동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유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call it a day: (하루 일을) 끝내다

Carla walks into work and sees her co-worker Rebecca ...

(칼라가 동료 레베카를 만나기 위해 걸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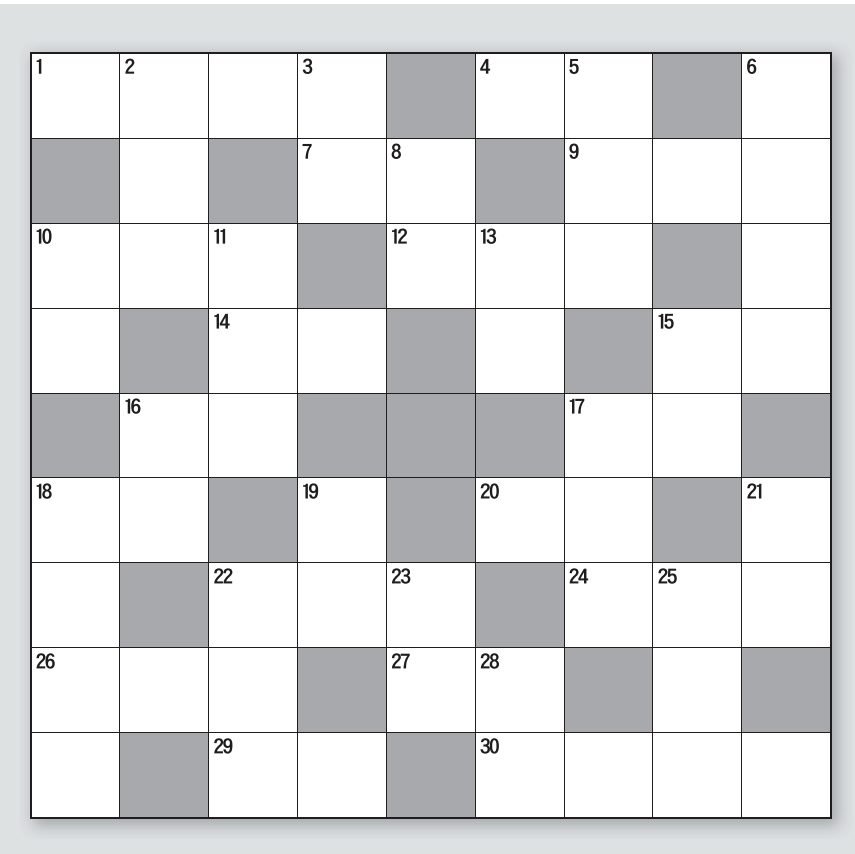
Carla: Good morning Rebecca,
칼라: 안녕 레베카.
Rebecca: Good morning Carla. You don't look so hot. Are you okay?
레베카: 안녕 칼라.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여. 괜찮아?
Carla: No I'm not.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칼라: 아니 안 괜찮아. 지난 밤에 한숨도 못 잤어.
Rebecca: Why not?
레베카: 왜?
Carla: Dogs were barking all night outside my

window.
칼라: 창밖에서 밤새 개들이 짖어대잖아.
Rebecca: So you couldn't sleep?
레베카: 그래서 못 잔 거야?
Carla: No. I was tossing and turning all night.
칼라: 응. 밤새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했어.
Rebecca: You should go home early today.
레베카: 오늘 일찍 퇴근해야겠다.
Carla: That's a good idea. I'll call it a day around 3:00.

칼라: 그거 괜찮은 생각이에요. 3시쯤에 일을 끝내야겠네.
Rebecca: You'll feel better tomorrow with a good night's sleep tonight.
레베카: 오늘 밤 푹 자고 나면 내일은 나아질 거야.vvvv
.....
기억할만한 표현
▶ (one) doesn't look so hot: (누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다.
"You don't look so hot. What happened to your eye?"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눈이 어떻게 됐나요?
▶ (one) couldn't sleep a wink: 한숨도 못 자다.
"I couldn't sleep a wink because the baby was crying all night."
(밤새 애가 우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 tossing and turning: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Because of my cough I was tossing and turning in bed all night."
(기침 때문에 밤새도록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 대개는 같고 차이가 거의 없음. 대□□□ (4)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느끼는 감각. 쌀로 만든 떡은 쫄깃한 ~이 튀어나다 (7) 용기의 아가리나 구멍 등에 끼워 막는 물건 (9) 야구에서, 누상에 주자가 있을 때, 요간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때린 안타 (10)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12)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 (14) 남을 비방하거나, 잘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 남의 혼사에 ~을 하면 안 된다 (15) 등에 큰 혹을 가지고 있다. 발바닥이 넓기 때문에 모래땅을 걷기에 알맞으며, 위(胃)에는 물을 많이 넣을 수 있다 (16) 봄에 우리나라에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다가 가을에 날아간다. 흥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주었죠 (17) 인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아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넓고 멀리 바라봄 (18) 떠나는 사람을 따라 나가 작별 인사를 하여 보냄 (20) 얼굴을 곱게 꾸임 (22) 매우 짧은 시간. 일순간 (24) 필요 없는 살이나 지방이 없이 단단한 체질. ~의 사나이 (26) 몸을 망치거나 체면 따위를 손상당할 운수 (27) 저녁을 먹은 뒤 밤에 출출할 때 먹는 간식 (29) 대중없이 어수선하게 꾸는 꿈

(30)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함. □언□□

세로열쇠

(2) 같은 목적으로 한패를 이룬 무리. 서클 (3) 눈썹의 위 (5) 사격장의 표적 근처에, 총알이 표적에 맞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파 놓은 호 (6) 어떤 일에 대하여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함. 가□□□ (8)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 열림. 천지 ~ (10) 내일의 다음 날 (11) 가족이나 합지박 따위를 질기고 단단하게 하려고 여러 겹으로 붙인 헝겊이나 종이 (13)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냄 (15) 작가가 글씨나 그림에 자신의 이름이나 아호를 쓰고 도장을 찍음 (16) 짚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17) 지나간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됨 (18)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함. □은□□ (19) 물고기의 잔뼈 (21) 약속 이행의 담보로 잡아 두는 사람.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패배해 소현세자를 ~로 데려갔다 (22) 털이 긴 우리나라 토종 개. 귀신이나 액운(살)을 쫓는 개라는 뜻을 지녔죠 (23) 바로 어젯밤 (25) 쇠고기를 삶아서 찢어 양념하여 맵게 끓인 국 (28)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구축한 방어 시설

스도쿠

6	3		1		8	9		
			6	9	3	2	7	
	4		8		7			
	5	6					4	
1		4	6		3	2		9
	9	2	1	7		6	3	
					2			
7			5	4			6	
9	1	3			6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5	4	9	8	7	3	1	6
3	9	6	1	4	5	8	2	7
8	7	1	2	6	3	5	9	4
5	3	9	4	7	1	2	6	8
6	8	2	3	5	9	4	7	1
1	4	7	8	2	6	9	5	3
9	1	5	7	3	8	6	4	2
7	2	3	6	9	4	1	8	5
4	6	8	5	1	2	7	3	9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병원 리셉션 및 간호사
풀/파트타임
풀러턴 지역
한국면허 인정
(714)389-7000
stemsmedical@gmail.com

덴탈랩(밸리)
월매상\$17,000, 기\$5만5천
주인은퇴 (213)269-7802

us.srotech.com
건설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구인

스시쉐프-풀타임
경력자 우대
(951)225-2212

기타 지역

사람을 찾습니다.

매매

구인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름 : 심 중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 작은 아버지
(213)905-3874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치과 급매(4곳)
파트너쉽도 가능
*1년 Income
-Riverside(1.6M)
-Fullerton(1.3M)
-Upland(1.3M)
-San Diego(0.6M)
현재 3곳은 흑자회사이
(949)668-8580 문자

아침 양식국/달리버리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채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대 \$1,400 450g
특대 \$1,800 450g
중 \$1,200 450g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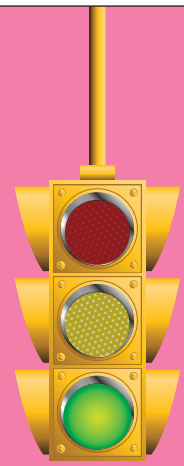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